

Korean News · 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한인뉴스

5 2019

VOL. 275

haninnewsinni@gmail.com



재인도네시아한인회
www.innekorean.or.id

SAMSUNG

Galaxy A10 | A20 | A30 | A50

New Galaxy A Series

A for **LIVE** Generation



**Ultra Wide Camera to
Capture All the Excitement**



**All Day Battery
for Non-Stop Fun***



**Infinity Display for
More than Just Watching**



**On Screen Fingerprint
for Easy Access**

**talk time" Base on Samsung internal test. Battery life depends on usage and settings.

www.GalaxyASeries.com

Customer Service: 0800-112-8888 (bebas pulsa) (021) 5699-7777 (hunting)

www.samsung.com/ID | [f](#) Samsung Indonesia | [t](#) SamsungID | [i](#) Samsung_ID | [y](#) Samsung Indonesia

TRANSFER FASTER

go korean

한결 수월해진 이동과 간편해진
수하물 처리는 여행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제2터미널만의 차원이 다른
환승 서비스를 경험해보세요.

KOREAN AIR 

GoKorean.KoreanAir.com



50
years

SAINT JAMES FACTORY OUTLET

BIG RAMADHAN SALE

All
50%
OFF

May 2nd - 29th

*category & white collection are not allow with this promo, no additional member discount 10%



FACTORY OUTLET

Marketing Office Jl. Raya Pasar Kemis - Cikupa,
Tangerang Banten.
Tlp. 021 5010 - 4557 / 58 / 59

SHOWROOM Pondok Indah Mall 2
Tlp. 021 759 - 20615

Lippo Mall Puri
Tlp. 021 291 - 11197



COOKBOWL



NOW available @ dekoruma.com & blibli.com

[saintjamestableware](https://www.instagram.com/saintjamestableware)

무궁화 마트 가맹점 모집



무궁화 마트란?

당사 무궁화 그룹은 40여년간 한국 식품을 정식 수입하여인도네시아 대형 마트 및 유통업체와 거래하고
당사 소유 건물의 직영점 7개를 운영하며 꾸준히성장하고 있는 대표 한국 식품 유통 회사입니다.
무궁화와 함께할 인니 전지역 무궁화 마트가맹점 사장님을 모집합니다

가맹점 장점

1. 안정적인 한국 식품 수입 및 공급
2. 안정적인 사업
3. 본사에서 운영 관리 교육
4. 해당 지역내 현지유통 및 식자재 공급 가능
5. 본사 운영 분식점 노하우 제공

가맹점 문의

Tel : 021 722 2214
Email : mghgood@gmail.com

가맹점 모집 지역

1. 인도네시아 전지방
2. 본점 및 분점 20km 이상.(상호 협의)
3. 희망 지역 선정 상호 협의

무궁화 마트 : 본점/땅그랑점/찌까랑점/꼴라빠 가딩점/뽕독인다점/다르마왕사점/수라바야점

발행처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발행인 : 박재한
편집인 : 김희년
논설위원 : 김문환
편집장 : 홍석영
편집위원 : 신돈철, 최인실, 황윤홍

전 화 : (021) 521-2515, 527-2054
팩 스 : (021) 526-8444
주 소 :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이 메 일 : haninnewsinni@gmail.com
웹사이트 (<http://www.innekorean.or.id>)
에서 한인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인뉴스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호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 화 : 021-521-25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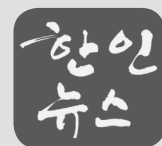
한인뉴스발행인 박재한 배상

조코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조코위는 차기대선을 사흘 앞두고 지난 번 2014년 대선 때와 같이
사우디아라비아로 메카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무슬림권자의 지지를 공고히 하기위해 필요한 행보였나 봅니다.

이제 곧 라마단 금식기간입니다.
해마다 같은 의문이 생기지만 역시나 외국인으로서는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다음 생을 준비하는 단계로 이생을 사는 것이 종교적 신념이라면
무슬림이 대다수인 이곳 사람들이
태생적 디폴트 세팅에 따라 별 저항이나 절망이 없는 것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데올로기나 실천보다 입장의 동일함이 가장 단단한 연대이므로
우리가 구경꾼 같은 느낌을 갖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라 생각합니다.



haninnewsinni@gmail.com
0818711246
편집장 홍석영

차례

- 08 제6대 박재한 한인회장 취임사
- 10 편집위원 칼럼 - 새정부의 '디지털화' 정책 <황윤홍>
- 12 [인터뷰] 그는 누구?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김종헌 수석부회장
- 16 신성철 칼럼 - "인도네시아 화인,
경제 권력에서 정치 권력으로"
- 20 이해창 경제칼럼 - 조코위 정부2기
출범의 배경과 의미
- 22 경제뉴스 콕! 짚어보기 <편집국>
- 24 배동선 작가의 [인도네시아 현대사] 19
- 28 월간 뉴스 브리핑 <자카르타 경제신문>
- 32 과시적 소비, 고금을 관통하는 욕망을 들여다보다 <월
간 문화재 사랑-손영옥>
- 36 자카르타 맛집탐방 <주윤지>
- 38 5월의 행복에세이 <오기택>
- 40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Barus 지역에서 사망한
신라승려 두 사람의 여정에 대하여 <김영수>
- 44 JIKS 소식
- 46 건강칼럼 <재인니 대한체육회>
- 50 나바수 <민선회>
- 57 JIS 소식
- 58 인도네시아 토지법 (273) <이승민>
- 60 인도네시아 건축문화 산책 <김의웅>
- 65 Pancoran 사람들 NO. 5 <편집국>

한인사회 이모저모

- 비자신청센터 개소 11
- 재인도네시아 임원단과의 상견례 15
- 한국 비즈넷 구축 19
- Jiks에 통학버스 지원금 기부 49
- 적도문학상 시상식 54
- 제6차 Maju Satu Langkah 63
- 김천시, 수방시 방문 64



2011년 6월 26일
발리 우붓(Ubud) 근교



- 제6대 박재한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장 취임사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극복해 나가는 한인회

사랑하는 한인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훌륭하신 한인회 임원분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중책을 맡아 송구스럽고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2019년 저의 새로운 도전은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회장으로서 역할과 소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결정이었던 만큼 인도네시아 한인동포 역사에서 선발주자이셨던 선배님들이 닦아놓은 터전인 1대에서 5대에 이르는 축적의 시간 위에 시간의 경로를 존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우린 수용의 폭을 넓혀야 하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외연의 확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한인회가 한인동포로서의 유대감과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잡다단한 이해관계가 얽힌 조직에서 리더들이 그렇듯 여러 잡음에 지쳐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의사 결정을 하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실적인 사안을 고려하며 전술적인 고민을 끊임없이 함과 동시에 유연한 자세로 귀를 열고 포용하는 한인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인회는 봉사단체로서의 면모를 새롭게 이어나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더 많은 한인들의 한인회를 향한 관심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인회의 목적에 부합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모든 활동이 원활하게 소통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인회 모든 사업과 예산집행은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제 6대 한인회는 동포 여러분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극복해 나가는 한인회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3월 28일

새 정부의 '디지털화'정책

황윤홍 편집위원

지난 4월 17일 실시된 대선 [표본개표] 결과, 뿌라보워 진영의 반발로 인한 긴장은 당분간 지속 되겠지만, 결국 현직 조코위 대통령이 오는 2024년까지 재 집권에 성공하여 총 10년 임기를 시작 할 것으로 보여진다. 조코위 재집권에 따른 전망과 이번 선거를 통해 바라본 변화 상황을 정리한 외국 미디어 논평을 소개한다.

조코위 정권 재집권 정책은 어디로?

우선 이번 대선에서 양 진영 모두가 가장 중요시하는 공통사항이 있었는데,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인도네시아 미래의 중장기적 방향을 읽을 수 있었다.

첫째, 국가의 풍부한 자원들을 국민을 위해 사용할 것이며 국내에서 그 부가가치를 최대한 창출시키고 이를 통해 고용도 늘리고 수입 의존도를 점차 줄여 나가 결국 그혜택을 모든 국민들에 골고루 나누어 주겠다는 주장이다. 이는 국가 자립 경제, 공업화, 자원 가공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지며 이의 달성을 위해서는 국영기업체들이 그 주체가 되어야만 한다는 원칙으로도 보여진다.

또 다른 하나는 정치의 이슬람화이다. 국시 [판짜실라] 에는 “종교에 대해 공론화하는것이 금지되어 있고 우리는 다양성을 추구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다. 그러나 국민의 90%가 무슬림으로 선거에서 이들의 지지를 어떻게 끌어 낼 것인가는 양 진영의 사활이 걸린 문제일 수밖에 없었다.

뿌라보워 진영의 이슬람층 지지를 끌어 내기 위한 피 말리는 노력에 결국 조코위 진영도 최대 이슬람 단체인 NU 총재를 부통령 후보로 영입하여 이들의 표에 매달릴수 밖에 없었던 장면들이 수차례 연출 되었다.

이 결과 정치권은 이슬람 세력과 한층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향후 각종 이슬람 도덕 규범들이 현행 법 제도에 자연스럽게 반영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조코위 재집권 정책 주안점

조코위 대통령이 공개 토론에서 수차례 반복 강조한 사항이 바로 ‘디지털화의 중요성’ 이었다. 조코위 대통령은 재집권에서 ‘디지털화’를 성장 정책의 수단뿐만이 아니라 분배 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무척 높다.

국내에 수많은 섬들과 낙후 지역을 디지털 통신으로 연결하고 농민들은 온라인을 통하여 시장과 소통하게 될 것이다. 중소기업들은 핀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원격지 주민들도 교육과 의료용 정보 콘텐츠를 통한 혜택을 보게 하겠다는 정책이다.

디지털 기술 혁신은 그간 뒤쳐 있던 소외계층에 친밀히 접근하여 이들을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에 참여 시키고 활용하는 주요 수단이 될 것이다. 지난 5년 조코위 정권의 성과로 알려진 성공적 인프라 구축도 결국은 다음 성장 단계로 진입을 위한 첫걸음으로, 다음 단계란 결국 [제 4차 산업혁명]인데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인적 자원 개발, 산업 구조 개혁, 종합 이노베이션 (쇄신, 혁신, 신제도 도입) 등이 추진될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디지털 환경에 능숙한 밀레니엄세대와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신생 벤처(스타트업)에 거는 기대는 지대하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외자 유치와 외자의 적극 활용은 앞으로 더욱 적극적이고 절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번 조코위측이 재집권에 성공은 하였지만 상대 진영과 표차는 별로 크지 않았고 여당의 득표율 역시 현저히 늘지도 않았다. 또 여당연합 일원인 골카르당은 도리어 제3당으로 밀려 났다. 그러나 조코위 재집권 성공으로 그간의 불확실성은 어느덧 사라졌고 눈치를 보고 있던 투자와 민간 소비도 다시 살아 나고 있는 징후가 여러 곳에서 확실히 느껴지고 있다.

눈 여겨 보아야 할 점은 무엇보다 이번 대선 승리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이슬람 세력에 과연 어떠한 배려를 해줘야만 할 것인가는 향후 조코위 정권 운영에 있어 큰 제약 요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한국 방문, 대한민국 비자신청센터(KVAC)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2일부터 롯데쇼핑에비뉴 5층에서 비자 접수 및 교부 업무를 개시

지난 몇 년간 대한민국의 한류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인도네시아 국민의 대한민국 방문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2018년 157,924건의 비자를 발급하였으며, 매년 약 15%이상 증가하고 있다.

대한민국 외교부, 법무부와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대한민국 비자신청센터(Korea Visa Application Center, KVAC)를 개소하여 한국 방문을 희망하는 인도네시아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주인도네시아 대사관은 비자 신청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비자발급 간소화를 추진할 것이며, 위와 같은 비자 간소화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인적 교류와 경제성장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KVAC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 1) KVAC는 JL. Prof. Dr Satrio에 위치한 롯데쇼핑에비뉴에 위치하고 있어 주차시설 등이 완비되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접수창구 및 접수시간을 대폭 확대하여 신청자들의 대기시간이 단축된다.
- 2) KVAC는 비자접수창구가 12개이고, 비자 접수시간은 09:00~15:00(점심시간도 접수, 총 6시간) 6운영되며 향후 접수시간을 더 연장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 3) KVAC는 10:00~16:00까지(점심시간에도 교부, 총 6시간) 교부할 예정이다.
- 4) KVAC는 비자접수 후 비자신청 진행상태에 대하여 신청자에게 3회에 걸쳐 (사증신청센터 신청



대한민국 비자 센터 개소 4월 25일 롯데에비뉴 5층 (구 롯데 면세면세점)에서 열린 대한민국 비자 센터 개소 기자 간담회에서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김창범 대사(좌) 사증신청센터 공병길 법인장(우)

접수, 대사관 심사, 교부준비) SMS문자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청인은 자신의 비자신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파악할 수 있다.

5) KVAC는 자체 홈페이지(www.visaforkorea-in.com)를 운영하여 비자신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할 것이며, 콜센터 설치로 전문 상담원에게 비자 관련 사항을 실시간 문의할 수 있다.

6) KVAC는 주요 여행사들을 위한 여행사 전용 업무공간을 제공하여 대기시간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비자 신청인들에게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문화원과 연계하여 한국방문에 필요한 관광 정보 등을 제공한다.

7) KVAC는 사진 촬영, 복사 등의 부가서비스도 제공한다.

(제공: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



재인도네시아한인회 김 종 현 수석부회장

서로 도와주고 끌어주는 모습을 지닌 한인 사회가 되었으면....



1. 인도네시아 정착하게 된 계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스토리(개인/회사)

1978년 초등학교 1학년때 부모님을 따라 인도네시아 첫 발을 내딛고 초등학교, 중학교를 인도네시아에서 졸업을 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정착한지 2년만에(1980년) 부모님께서 운영 중이신 원목회사가 부도를 맞게 되고 이때 부모님은 한국으로 돌아갈 길이 막막하여 어쩔 수 없이 여러 교민들의 도움으로 식품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각 지방에 건설붐이 일어나면서 한국인의 노동자가 대거 인니로 들어오면서 건설현장에 김치를 납품하게 된 계기로 점점 사정이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학교, 파키스탄 학교, 간디학교 그리고 미국학교를 전전하며 다니다 부모님의 권유로 좀 더 큰 나라에서 공부를 하고자 미국으로 홀로 유학의 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이 “한국인이 한국을 모르면 안된다” 는 뜻에 따라 한국의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입학하였습니다. 군대를 마치고 식품유통업을 하시는 부모님의 길을 가기 위해 한국의 한화 유통을 다니다가 1998년 인도네시아로 돌아와 그때부터 본격적인 2세 경영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MGH
MU GUNG HWA



2. PT. KOIN BUMI 소개 및 현재상황 (경영 노하우 등) 및 향후 비전

PT. KOIN BUMI (무궁화 유통)은 한국식품 전문 유통회사로서 인니전역 약 4,000 여곳에 유통을 하고 있으며 현재 자체 매장 8곳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 자체 본 브랜드 카페(3곳), 무궁화 분식(5곳)도 같이 운영 중입니다.

고객만족경영, 사람존중경영, 새로운 가치창조 경영이라는 3대 비전으로 인도네시아에 더욱 많은 한국 식품들이 현지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들을 구성하여 수입을 하고 있으며 다른 지방에 무궁화 유통, 무궁화 분식이 정착할 수 있도록 프랜차이즈 화 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향후 인도네시아에 100여개의 무궁화 매장과 분식점을 목표로 인니 10위권 안에 드는 유통기업으로 약진하여 진정한 고객중심의 기업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3.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제3분과 (대외 협력, 청년분과) 담당 수석으로서 계획

6대 재인니한인회 3분과(대외협력, 청년분과)

수석부회장으로서 인도네시아 정·재계인사, 공무원, 군·경찰들과 더욱 많은 만남을 통하여 우리 교민들이 이곳 현지에서 더욱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계획이며 현재 교민 2세 뿐만 아니라 많은 한인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으므로 3분과 소속인 청년회를 통하여 취업 알선, 창업알선 등 젊은 한인들이 최대한 빨리 이곳에 정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4. 상징적인 2세 기업경영으로 느끼는 점

솔직히 2세경영은 잘해도 본전, 못하면 욕먹는 자리입니다. 1세대에서 일구신 사업들을 2세들이 경영하면서 실패를 한 경우를 너무도 많이 본 저로서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직 현장에서 일하시는 두분 부모님을 모시고 일을 하는 2세 입장에서는 더욱 부담이 되고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힘들여 세우신 이 사업을 젊은 폐기와 1세대분들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열심히 한다면 더욱 성장하는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5. 살면서 일탈을 해본 경험이 있다면

중학교 때 처음으로 미국학교 (JIS)를 들어갔을 때 10명 채 안되는 한국이 학생들이 자주 인종차별을 자주 당하고 있었고, 이때 저는 인종차별을 하는 백인들과 자주 싸움을 하게 되어 몇 차례의 정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의분이 좀 있나 봅니다. (웃음)

6. 현재 자신의 흥미를 끄는 분야가 있다면

아무래도 하는 일이 식품 쪽이다 보니 한국의 분식 및 음식을 요즘 대세인 소셜미디어와 연계하여 전국적으로 한국의 식품을 알리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7. 10년 후 예상되는 자화상은

10년 후면 저도 어느덧 60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가 됩니다. 요즘은 100세를 바라보며 사는 세대인

만큼 60대가 되더라도 한창 일할 나이 이므로 한국 식품뿐만 아니라 더욱 다양한 나라의 좋은 상품들을 발굴하기 위해 전세계를 누비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특히 자녀들이 다 장성하여 부모의 품을 떠난 상태이므로 아마도 집사람과 같이 전세계를 상품 발굴 겸 여행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8. 한인사회에 하고 싶은 말

아직 젊은 제가 한인사회에 하고 싶은 말을 하기엔 조심스럽지만 한가지 제가 이곳 인도네시아에서 40여년간 산 사람으로서 느낀 점은 밖에서 보기엔 이곳에 사는 다른 나라 사람(중국인, 인도인, 일본인 등)들은 서로 단합이 잘되는 것 같습니다. 반면 한인들은 아직도 이웃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점점 많은 젊은 한인들이 이곳에 정착을 하고 있는데 이미 정착을 한 한인끼리 서로 경쟁하기 보다는 도와주고 끌어주는 모습을 지닌 한인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임원단과의 상견례



고문단과의 만남



자문위원단과의 만남



회장단과의 만남

재인도네시아 한인회는 2019년 4월 5일, 고문단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4월 10일은 자문위원단, 4월 15일은 회장단과의 상견례를 마쳤다.

활발한 의견개진과 새로 출범하는 6대 박재한 회장에 대한 기대와 격려가 오가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이 자리에서 제 6대 한인회는 모두의 자리와 역할이 있는 명실상부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 “인도네시아 화인, 경제 권력에서 정치 권력으로”

글: 신성철 데일리인도네시아 대표

지난 4월 17일 인도네시아 대선과 함께 치러진 총선에서 중국계 인도네시아인으로 보이는 국회와 지방의회 의원 후보들이 다수 출마했다. 유세기간 당시 자카르타와 수도권 도로변에 세워진 입간판에 중국계로 보이는 후보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특히, 여성 권익과 다원주의를 표방한 신생 정당 인도네시아연합당(Partai Solidaritas Indonesia)의 공동설립자 그레이스 나탈리 당대표는 중국계 인도네시아인으로 유명한 텔레비전 아나운서 출신이다.

인도네시아 화인(또는 화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로 십중팔구 ‘재리에 밝은 화상’을 꼽을 수 있다. 화인들이 인도네시아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한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인도네시아 정치와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쳤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화인의 인구수를 파악하기도 힘들고 공식적인 통계도 없지만, 통상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 2억6천만명 가운데 대략 3%(780만명)로 추산한다. 그럼에도 인도네시아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싶다면 화인에 대한 이해가 필수다. 화인들은 수하르토 정권기(1966~1998년, 또는 신질서시대)에 정치와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으면서도 부를 축적했고, 1998년 이후 개혁시대를 맞이하면서 막대한 부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회활동은 물론 정계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이 칼럼에서는 화인들의 정치적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겠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화교’와 ‘화인’의 의미와 기준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화교의 사전적 의미는 ‘외국에 사는 중국인’이다. 학계에서도 일반적으로 ‘화교’는 중국국적 소지자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한정하며, ‘화인’은 법률적 의미에서 중국 문화와 중국인 혈통을 보존하고 있는

비(非)중국국민을 가리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거의 모든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들이 인도네시아 국적을 갖고 있는 만큼 편의상 ‘화인’으로 통칭한다.

또 화인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통념만큼 간단하지 않다. 혈통, 이름, 언어, 문화, 자기인식 등 그 어떠한 기준도 인도네시아 화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순수혈통을 간직하고 있는 중국인을 또뚝(totok)이라고 부른다. 19세기 말 이전까지는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로 이주한 중국인들 거의 모두가 남성이었으며 막노동이나 무역 활동을 위해 본국에서 이주해 귀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지 여성과 혼인해 부계혈통을 이어가면서 중국문화를 계승한 이들을 빠라나칸(peranakan)이라고 부르며 통상 중국계로 간주한다. 현재 대부분의 인도네시아 화인은 빠라나칸이고 또뚝의 수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종족별 또는 출신지역별 구성은 호키엔 출신이 화인 전체의 절반 가량이며 이외에 학카와 광둥 출신이 주류를 이룬다. 주요 거주지역은 자카르타, 스마랑, 수라바야, 메단(북부수마트라) 등 대도시에서 집중되어 있지만 플랜테이션 노동자나 광부로 대거 이주한 역사를 반영하듯 서부칼리만탄 주, 방카-블리똥 주, 리아우 주 등 지방에도 상당수가 거주하고 있다.

이 글의 주제인 화인들의 정치 활동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인도네시아 독립 이전부터 화인들의 정치활동은 매우 활발했다. 인도네시아 정치와 사회적인 측면에서 화인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화인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나 인도네시아 근현대사에 영향력을 발휘한 화인은 다수가 있다. 특히, 수카르노 집권시기인 의회민주주의와 교도민주주의 시기(1950~1965



Grace Natalie, Ketua Umum Partai Solidaritas Indonesia (PSI)

년)에 화인들은 이념적으로 다양한 정치조직과 정당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당시 화인들은 수카르노 정권의 좌경화로 중국 공산당과 접촉도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았다. 의회민주주의 시기에는 각료로 임명되기도 하고 의원으로 참여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했다.

수카르노 집권 말기에 화인사회가 극적인 변화를 맞는다. 1965년 9월 30일 인도네시아공산당(PKI)이 자카르타에서 7명의 군부장성 집을 습격해 6명을 살해하며 쿠데타를 일으켰으나, 수하르토 소장이 중심이 된 우파 군부는 이 쿠데타를 빠르게 진압했다. 수하르토는 수카르노 대통령을 연금하고 공산당을 토벌하는 등 정변을 일으켜 국가 권력을 손에 쏜다. 이 과정에서 화인을 포함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한다.

정권을 장악한 수하르토는 강압적인 방식의 ‘중국계 동화 정책’을 펼친다. 1967년 수하르토가 내놓은 ‘중국인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정책’에 따르면 중국어로 된 공식문서를 폐지하고 화인의 종교 행사는 집 안에서 하는 것으로 제한했다. 중국어로 가르치는 학교도 폐쇄했다. 또 중국 이름을

인도네시아식으로 개명하도록 했다. 중국어 신문은 물론 차이나타운의 거리에서 간판과 광고판에 이르기까지 한자를 찾아 볼 수가 없었다. 정치인은 물론 군인과 공무원으로 화인을 선발하지 않았고 심지어 인도네시아대학교(UI) 등 국립대학에 화인 학생수를 제한했다. 수하르토가 집권 32년 동안 좀처럼 다른 문화에 순응하지 않는 화인들을 동화시키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학계는 평가한다.

반공과 반급진주의 이슬람을 표방한 수하르토 정부가 들어서면서 인도네시아는 친미 성향의 자본주의 체제로 편입되었다.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정권을 잡은 수하르토는 경제발전을 최우선 목표로 세우고 화인의 자본과 경영능력을 통해 경제를 부흥시키면서 림셔룽(인도네시아 이름 수도노 살림) 살림그룹 회장과 같은 화인에게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화인 재벌이 속속 탄생하게 된다. 신질서시대에 화인들은 이념적인 정치활동은 중단됐지만 우회하는 방식으로 정치에 관여했다. 화교들은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인도네시아상공회의소(Kadin)와 경제인총연합회(Apindo) 등 경제인단체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싱크탱크인 국제문제전략연구소(CSIS)를 화인재벌

들이 후원하고, 일간 꿈빠스와 주간 뽀뽀 등 유력 언론사들이 화인들이 소유주이거나 편집인으로 활동해 간접적으로 자신들의 권익과 이익을 대변했다.

수하르토는 빈곤의 상태에서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하지만 정경유착과 부패로 화인들은 부를 크게 축적한 반면, 민생은 도탄에 빠진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직후 실업률이 치솟고 가뭄과 산불 등 자연재해까지 겹치자 인도네시아 민심은 극도로 흉흉했다. 이듬해 5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면서 수하르토는 스스로 권좌에서 내려온다. 이 과정에서 폭동이 발생하고 화인을 표적으로 한 엄청난 폭력이 자행됐다.

아픈 상처를 딛고 1999년 총선 직후 상원적인 국민협의회(MPR)에서 선출된 압두라만 와히트(일명 구스두르) 대통령은 자신이 중국계임을 인정했고, 2000년 2월 유교를 인도네시아 합법적인 종교로 정식 승인하고 공포하는 등 중국문화를 허용하는 다원주의를 표방한다. 와히트 정권은 중국계인 켉끼안기를 경제조정장관으로 선임했다. 2004년 인도네시아 최초 직접선거로 선출된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은 중국계 여성 마리 엘카 빵에스뚜를 무역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중국계를 다소

편하하는 의미를 지닌 짜나(Cina)라는 표현을 띠옹콕(Tiongkok, 중국)으로 공식 변경하는 등 중국계 유화정책을 펼쳤다.

중국이 주요 2개국(G2)으로 부상하자, 큰 부를 축적한 인도네시아 화인들은 중국과 다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과거 화인들은 호키엔어 등 각자 출신 지역의 지방어를 썼으나 이제 그들의 2세와 3세들은 국내외에서 영어는 물론 만다린(표준 중국어)을 공부해 코스모폴리탄(세계시민)으로 성장하고 있다. 화인들은 1998년 5월 사태를 경험하면서 토착사회와 협력을 증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런 활동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와중에 최근 중국계 기독교도 출신인 바수끼 짜하야 뿌르나마(일명 아혹) 전 자카르타 주지사가 이슬람 신성 모독죄로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건은 아직도 헤쳐 나갈 사안이 산적해 있음을 시사한다. 토착민과 화인 간 반목과 질시가 아니라 포용과 관용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다원주의를 견지해 나가는 게 인도네시아를 대국으로 이끄는 지름길이며, 인도네시아 정부와 국민들에게 주어진 숙제다.

<참고문헌> 인도네시아사, 양승운(2012) / 인도네시아 화교와 화교자본, 신윤환(1993)



‘한국비즈넷 구축’ 인도네시아 코린도 그룹 물류사업본부 통합물류솔루션 오픈!

비마루나 물류사업 경쟁력 강화 발판 마련

물류IT전문기업 한국 비즈넷이 인도네시아 코린도 그룹의 물류사업본부인 비마루나 자야(PT. BIMARUNA JAYA)에 통합물류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한국 비즈넷은 자사의 솔루션을 성공적으로 인도네시아 시장에 공급하는 한편, 비마루나는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물류IT 고도화를 이뤄내 양사가 Win-Win하는 발판이 마련됐다.

한국 비즈넷은 4월1일 비마루나 자야의 통합물류관리시스템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지난 해 포워딩 시스템을 시작으로 창고부문시스템을 구축한 비마루나는 이번 통합시스템 도입을 통해 여러 업무를 하나의 프로세스로 일원화하는 한편, 물류사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게 되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이 통합시스템엔 국가별 세제, 관세법 등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비마루나에 공급된 시스템에도 현지 물류 문화 및 환경에 적합한 시스템을 적용했다.

1991년에 설립된 코린도 물류사업부 비마루나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약 9만5200㎡ 규모인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보세 수출입과 일반화물을 취급할 수 있는 1만2000㎡ 및 일시 보관이 가능한 8000㎡ 규모의 물류센터를 가동 중에 있다. 또한 내륙운송과 수출입 컨테이너 국제물류 및 프로젝트 화물 서비스는 물론, 약 8000TEU 보관이 가능한 컨테이너 야드(CY) 운영 등 육상·해상·항공을 아우르는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카르타에서 컨테이너야드(CY) 운영, 육상운송, 보세물류창고 (PLB· Pusat Logistik Berikat)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마루나는



지금까지 축적한 물류 노하우를 통해 글로벌 물류기업 새 도약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또한 그룹사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진출 한인기업 수출입업무 대행을 적극 수행하며 물류 부문에서 두각을 드러내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코린도 물류사업본부 조명국 전무는 “G-SABIS 시스템 구축 오픈을 통해 앞으로 인도네시아 물류시장을 선두하는 물류법인이 될 것이라 장담하며 시스템 구축에 힘을 써준 한국 비즈넷 측에 감사인사를 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한국 비즈넷은 이미 구축된 베트남 지사와 인도네시아에서 수행한 물류IT 노하우를 바탕으로 동남아시아에서 회사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 회사의 역량을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한국 비즈넷 김민중 부사장은 “오랫동안 인도네시아에 상주하며 현지 물류업계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을 만났고 현지문화에 대해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다” 며 “이러한 노력과 역량을 집중한 결과 지금의 솔루션을 구축하게 됐다” 고 말했다.

(제공: 코린도 그룹 홍보실)

[다시 서는 봄 2]

조코위 정부 2기 출범의 배경과 의미

글: 이해창 (신한은행 전무)

작년 하반기 이후 인도네시아의 최대 이벤트이자 2019년 상반기 아세안에서 가장 주목받던 정치 이슈였던 인도네시아 대선이 막을 내렸다. 지난 4월 17일 인도네시아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선서와 의회선거가 함께 치러진 총선에서 조코위 현 대통령은 경쟁자인 야권의 프라보워를 물리치고 (사실상)승리를 거두었으며, 기존 여당 연합 (투쟁민주당 등)이 약 60% 득표를 통해 의석수 과반 유지가 가능 할 전망이다. 5년 중임제의 대통령제를 도입한 인도네시아에서 이번 대선은 2014년에 맞붙었던 후보들간 재대결 구도가 형성됐다는 점에서 화제를 몰고 왔었다.

조코위 대통령이 인니 유권자들의 재신임을 받은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렇듯 경제 성과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다. 2014년 말 조코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인도네시아는 연평균 5%의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는데 이는 중국 경기 둔화 등의 여파로 주 외화벌이인 원자재 수출이 타격을 입은 것과 더불어 신흥국 금융 불안 등이 더해지며 작년 하반기 루피아가치가 25% 가량 하락하는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선방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이에 더해 고젝, 토코페디아, 트래블로카 등 기업 가치가 10억달러가 넘는 유니콘 기업이 최근 5년 사이 4개나 등장 했을 만큼 디지털 경제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적극 육성한 점도 한몫 했다는 평가다. 최근 인니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토코페디아가 소프트뱅크와 알리바바로부터 11억 달러

를 유치한다고 밝혀 주위를 놀라게 하는 등 2017년 인도네시아의 스타트업 관련 벤처 투자액이 전년의 14억 달러보다 2배 이상 증가한 30억 달러를 넘기면서 인도네시아 스타트업 시장은 오일가스과 광업에 이어 세 번째로 큰 투자유치 산업으로 성장하였는데 이점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냈다는 분석이다. 특히, 시골 출신 창업가인 토코페디아 윌리엄 타누위자야의 성공신화는 많은 인도네시아의 젊은 예비 창업가들에게 귀감이 되었는데 스타트업 기업의 성공스토리가 더이상 부유층 출신 청년들의 전유물만이 아님을 증명하며 중산층 청년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다.

이밖에 산업의 혈관과도 같은 교통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대중교통 시스템을 개선하고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등 인프라 전반의 확충에 팔을 걷어붙이는 한편, 인도네시아의 고질적인 문제로 여겨지던 높은 빈곤율을 역대 최저치인 10% 미만으로 낮추는 등 빈곤 퇴치에 노력한 점은 유권자가 다시 조코위의 손을 들어주기에 충분했다.

한편, 조코위 대통령의 재선이 확실해지면서 인도네시아는 더욱 매력적인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대선은 인도네시아 향후 5년의 개혁 형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로 평가받았는데, 조코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그동안 추진하고 있던 개혁 드라이브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바, 선거를 불과 몇일 앞두고 필자가 만난 한 글로벌은행의 아세안지역 투자담당



자가 선거 결과 예측을 예의 주시하면서 예상 밖의 선거결과가 불러올 엄청난 파장을 우려한 점은 조코위 정부의 친시장정책에 그 방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전문가들의 발표자료에 의하면 인니의 경우 GDP의 50%를 차지하는 민간소비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인프라 투자 정책이 지속되면서 정부지출과 고정자본 투자증가세 역시 경기회복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이다. 이렇듯 정치와 경제가 안정을 찾으면서 증시도 순항하고 있는데 지난해 하반기 5000대에서 머물던 인도네시아 IDX종합지수는 6500포인트에 육박하면서 전고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다만, GDP 3%에 육박하는 경상수지 적자는 작년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을 흔들었던 환율파동과 궤를 같이 하는 만큼 향후 인니 경제의 주요 키포인트 중 하나로 지목 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인도네시아가 신남방정책의 전초기지로서 떠오르며 교역 및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난 4월 국내 조선사가 1조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잠수함을 수주하며 이를 방증했다. 실제로 전세계 국가중 한국산 무기를 가장 많이 구입하는 나라는 바로 인도네시아

인데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4년~2018년간 한국이 수출한 17% 무기는 인도네시아로 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니의 국방력은 세계 15위로 동남에서 가장 높은 순위인 바, 조코위 대통령이 지난 2014년 대선 캠페인에 이어 이번에도 ‘글로벌 해양 강국’을 국가 비전으로 발표한 만큼 군용선박을 비롯한 고부가가치 선박들의 국내 수주가 이어져 그 동안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온 국내 조선업계의 부활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아울러, 작년 9월의 술라웨시 쓰나미 피해에 이어, 10월 항공기 추락 및 하반기 대외변수 악화에 의한 루피아 가치 급락과 경제불안 등 인도네시아에 악재가 거듭되자 필자는 그 해 11월의 본 칼럼에서 인니의 다시서는 봄을 바라며 희망의 싹기를 되뇌인 적이 있었다. 이제 도래할 조코위 정부 2기를 시작으로 내부의 해묵은 갈등은 접어두고 국민 모두가 하나되어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5년을 국가 발전 원동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바래본다.

“이제 순한 햇살에 고된 발길 내려 놓으며 황홀한 부딪침 들판에 수 놓고 열변을 죽어도 부끄럽지 않을 붉은 꽃 한 송이 피우렵니다.”

(詩, 다시 서는 봄 中)



경제뉴스 꼭! 짚어보기

■ 4월의 헤드라인 ■

첫째 주

- 니켈 관련 산업. 10-15년내 제2 수출 품목 팜 산업 규모 상회. 무역부
- KFC 전국 680개점포. 작년 순익 27% 증 (+2,120억루피아)
- 국영제약 끼미야파르마. 금년 약국,클리닉 200개소 신설 계획
- 국내 최대 담배사 [구당가람], 작년 순익 0.5 % 증가 (+7,918억루피아)
- 골카르당 국회의원 체포. 해운업자부터 15억루피아 뇌물. KPK
- 금년 1-2월 국내 픽업 자동차 판매 둔화 (전년대비 5.3% 증가 /24,149대)
- 법인, 개인 확정 소득세 신고율 3월말시점 70%. 총 납세 의무자수 1,550만. 세무국
- 인니 2020년부터 철강 수출국 전환. 국내생산 540만톤/국내소비 390만톤
- MRT지하철 8개역 주변 개발 착수. 운임 외 수익 확보. 지하철 공사
- 의복 판브라더스, 생산 능력 1억벌로 증산. 작년 순익 95.7% 증 (+1,829만달러)
- 국영항공사 가루다, 2018년 81만달러 흑자 전환 (2017년 -217백만달러)
- 국영철강 크라카따우스틸, 작년 적자 (-7,482만달러). 2017년 대비 축소

둘째 주

- 수도권 오피스 면적. 2019 - 2021년150만 m2 추가 공급
- 원유, 천연가스 일 생산량 금년 1분기 목표 미달 (시설노후 및 악천후 요인)
- 국내 원유가 금년 3월 베럴당 63.6달러로 소폭 상승 (OPEC감산 영향)
- 국영 시멘트 [PT. Semen Indo], 작년 순익 90% 증가 (+3조8천억루피아)
- 인니 최초 배터리용 니켈 공장 건설 순항. 2020년 생산개시. 환경 조사중
- 수카르노하타 공항, 2019년 2월 정시 발착율 세계 25위로 개선
- 신발류14억 천만족 생산. 2018년 세계 4위 (마켓셰어 4.6%) 산업부
- 살림그룹 산하 에너지 인프라회사. 재생 에너지발전 사업 1.3조 루피아 투자
- 인니 세계은행 비즈니스환경 순위 2020년 50-60위로 상승. 경제조정부
- 지하철 (MRT) 일 평균이용객 78,000명. 최대 이용역은 [호텔인도네시아]
- 수도 요금 상한-하한 설정. 중앙정부로 일원화. 지역별 요금 격차 해소
- 발릭빠빠 - 사마린다 고속도로 전구간 99.35km 7월 개통



셋째 주

- 대규모 산업용 심야 전기 요금 30% 할인. 2020년말 실시 목표. PLN
- 외국 법인 과세 근거 중 항구적시설 (PE) 정의 명확화 추진. 재무부
- 법인세 일정 기간 면제 제도. 19개사 온라인 신청. BKPM
- 자카르타 주정부 2030년까지 인프라 사업 9건 제안. 지하철 연장 포함
- 중국 샤오미. 인니 스마트 폰 생산 누계 천만대 달성
- 노동사회보험. 금년 가입자 전년대비12.5% 증가 목표 (3,430만명)
- 인니 최초 헬리콥터 제 1 전용 공항 완공. 금년 말 영업 개시
- 국영 만다리 은행. 글로벌 미 달러채 7억 5천만불 발행 (5년 /3.75%)
- 국영 무기 제조사 [PT. Pindad] 중형 전차 [Harimau] 수출 추진. 아세안 (44대) 및 남아시아 국가 (120대) 입찰 중. 터키와 공동 개발
- 주류 음료 수입 규제 강화. 보세 센터 경유 제한. 밀수 방지책. 무역부
- 인니 최대 타이어 [가자똥갈] 2018년 적자 (-745억 루피아)
- 바탐 - 빈판 대교 (6.41km). 2020년 착공 방침. 공공사업부

넷째 주

- 금년 1분기 실질 GDP 전년 동기대비 + 5.1~5.2% 추정 (내수호조, 건설 투자)
- 2019년 비석유. 가스 수출 목표 전년대비 8% 상향 조정. 무역부
- 남슬라웨시 주정부. LRT 62.73km 건설 계획. 외국 투자가 유치
- [블루버드] 택시. 첫 전기자동차 30대 영업 개시. 2025년 2,000대 목표
- 국영전력 PLN 사장 뇌물 수뢰 혐의 용의자 수사. 리아우주 발전소 관련. KPK
- 2020년도 경제성장률 목표5.3~5.6% 설정. 대통령 5.6% 희망 피력. 재무부장관
- BCA은행 [로얄인도네시아 은행] 총주식 1조70억루피아에 매수 발표
- 국영석유 [쁘르파마나] 프랑스 에어버스 대형 수송기 [A400M] 내년 인수. 격지 화물 운송과 긴급 재난 구조에 투입. 국영기업부
- ‘피자헛’ IDR 1,250억 투자. 브카시에 소시지 및 냉동공장 건설. 2020년 가동
- 국영 광업 ANTAM. 2019년 빠뿌아아주서 金 탐사 사업 개시. 20ha자사 보유 광구
- 연구개발 (R & D), 직업 교육 예산에 기업 소득공제 적용. 상반기 공포. 산업부

한인뉴스 편집국



수카르노의 일생을 통해 본 인도네시아 현대사



모하마드 로엠(왼쪽사진 가운데)

지난 호에 이어

로엠-반로엔 조약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끈기있는 저항과 적극적인 외교공세는 식민지 회복을 노리는 네덜란드에게 세계여론이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놀라운 군사적 성과를 거둔 두 번째 ‘경찰행동’이 외교적으로는 네덜란드에게 재앙과도 같았던 것이다. 신임 미국무장관 딘 에치슨은 일찍이 유엔이 제안했으나 네덜란드가 줄곧 거부했던 협상테이블을 향해 이제 전 세계가 네덜란드의 등을 떠밀었다.

그리하여 자카르타의 호텔 드인디스에서 1949년 4월 14일부터 협상을 주도한 인도네시아측 모하야드 로엠과 네덜란드측 얀 헤르만 반로엔의 이름을 딴 로엠-반로엔 조약이 1949년 5월 7일 서명되었다. 이 조약은 그해 하반기에 헤이그 국제

원탁회의에서 인도네시아의 독립조건들이 결정되고 최종승인되기 전 양국간의 현안을 정리한 것이었다.

합의된 내용들은 다음과 같았다.

- 인도네시아군은 모든 게릴라활동을 중지한다.
-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는 원탁회의에 참가할 것을 동의한다.
- 족자에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를 복원한다.
- 네덜란드군은 모든 군사행동을 중지하고 전쟁 포로들을 석방한다.

로엠-반로엔 조약이 체결되던 날, 독립전쟁 내내 공화국군을 끊임없이 밀어부쳤던 스폴 장군이 네덜란드군 사령관직을 사임했다. 고국을 멀리 떠나 남태평양에서 제2차 세계대전과 인도네시아 독립

전쟁에 참전하며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이먼 헨드릭 스폴 장군은 그로부터 불과 3주 후인 5월 25일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발발 당시 대위에 불과했지만 1949년 5월 사망 이틀 전에 대장까지 고속진급했다. 제2차 대전당시 호주로 철수한 후 연합군 맥아더장군의 참모로 뉴기니 침공에 참전했고 인도네시아 독립전쟁에서 네덜란드군 총사령관으로 프로덕트작전과 그라이작전을 지휘했다. 그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과로사였다고 하나 독살당했다는 설도 존재한다. 그는 오늘날 자카르타 카사블랑카 거리에 있는 멘뎡뿔로 묘지에 묻혔다.

그해 6월 22일, 향후 네덜란드와 인도네시아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 지에 대한 회합이 열렸고 다음과 같은 원칙들이 합의되었다.

- 1948년 렌빌조약에 의거하여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에게 완전하고도 무조건적인 권력이양을 집행한다.
- 자발적이고도 동등한 권리를 보유한 동등한 동반자관계로서 네덜란드와 인도네시아는 하나의 연방을 수립한다.
- 네덜란드령 동인도제도의 권리와 권한, 의무를 인도네시아에 이양하는 것에 대해 합의한다.

이 조약에 따라 네덜란드군은 6월 24일 족자에서 전격 철수했고 사흘 뒤인 6월 27일 공화국군이 족자에 입성했다. 네덜란드 점령기간 내내 홀로 족자를 지켰던 술탄 하멩꾸부위노 9세는, 7월 6일 마침내 유배에서 풀려나 사흘 후 공화국 수도인 족자로 돌아온 수카르노 대통령과 모하마드 하타 부통령 등 공화국 정부와 각료들을 술탄의 궁전인 그라톤에서 뜨겁게 맞았다. 7월 13일 샤리푸딘 뿌라워라느가라가 이끌던 부깃멍기의 긴급정부가 공식적으로 수카르노 정부에게 정권을 이양했고 하타의 내각은 이날로 로엠-반로엔 조약을 비준했다.

그리하여 8월 3일 네덜란드와 인도네시아간의 휴전협정이 조인되고 8월 11일에는 자바에, 8월 15일에는 수마트라에 각각 평화가 선포되었다. 네덜란드군은 12,000명의 공화국군 포로들을 석방했다.

수라카르타 총공세

그런데 자바섬에서 휴전이 발효되기 직전인 1949년 8월 7일부터 10일까지 공화국군이 수라카르타를 총공격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사건은 ‘수라카르타 4일전투’ 라고도 일컬어 진다.

1949년 8월 3일 22시00분 전군사령관 수디르만 장군은 1949년 8월 11일엔 자바에서, 8월 15일엔 수마트라에서 모든 교전을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슬라멧 리야디 중령이 이끄는 스노빠띠 사단 제 5여단과 야흐마디 소령의 특임대 학생군(TP) 여단은 휴전이 발효되기 전에 네덜란드군을 공격해 솔로를 탈환함으로써 외교적 정전협약이 아니라 공화국군의 자체 역량만으로도 무력으로 네덜란드군을 몰아낼 수 있음을 보여주하고자 했다.

공화국군은 족자에서 그랬던 것처럼 솔로에서도 2월 8일과 5월 2일 두 차례 공세를 펼쳐 네덜란드군의 방어능력을 확인한 바 있었다. 로엠-반로엔 조약에 따라 6월 말 족자에서 철수한 네덜란드군 일부가 합류하면서 솔로의 네덜란드군 화력은 좀 더 증강된 상태였다.

솔로 총공격이 있기 전 몇가지 전조들이 이 작전의 성공가능성을 더욱 높여 주었다. 쥘루링안 다리를 공격할 때 전사한 네덜란드군 병사들의 개인 물품들을 학생군 제17여단 측에서 네덜란드군 사령부에 돌려준 일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당시 전투에 참가했던 네덜란드 병사들 중 신경쇠약으로 미쳐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수라카르타 수비 대대 중 1개 중대가 브렌 경기관총 8정과 자동소총 30정, M95 소총 등을 들고 통째로 투항해 온 일도 있었다. 네덜란드군은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상의 사건들 말고도 네덜란드군 반브레덴 중장(Van Vreeden)은 8월 3일 휴전발표가 나던 날, 보다 유리한 협상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가뚝 수브로또 대령의 지휘소와 대사발롱에 있던 인도네시아 국영 라디오방송시설을 비밀리에 공격하도록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휴전예보란 그 시한 내에 군사적, 정치적으로 보다 유리한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처절한 유혈사태를 불러오는 법이다. 한국전쟁 막바지에 발표된 휴전발효일정 예보가 철의 삼각지대에서 참혹한 막판 고지전을 불러왔던 것처럼 말이다. 가뚝 수브로또 대령의 지휘소와 방송시설은 공격이 있기 전에 이미 자리를 옮겨 피해를 입진 않았으나 이 사건은 네덜란드군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얼마든지 정전협정을 파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로 여겨졌다.

수라카르타 총공격의 주역 학생군 병사들

솔로는 족자 점령군 지휘관 반랑젠 대령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반올 대령이 지휘하는 네덜란드군 최정예부대가 요새화한 도시였고 족자를 공화국에게 넘겨주고 철수한 네덜란드군 상당수가 솔로로 집결해 1949년 8월 솔로에는 네덜란드군 11개 대대가 주요 거점 지역들을 장악하고 있었다. 한편 그들과 대치한 공화국군은 경찰군 2개여단, 학생군 1개 중대, 아흐마디 소령의 특임대 학생군 17여단, 슬라멧 리야디 중령의 스노빠티 사단 5여단이었다. 숫적으로는 공화국군이 우위를 점했지만 그들이 갖추고 있던 무장과 화력은 네덜란드군에 비할 바 없을 정도로 열세였다.

여러 차례에 걸친 사전회합과 작전회의를 거친 끝에 8월 7일 새벽 6시 총공격이 시작되었다. SWK(준방어선) 106의 아르쥬나 부대가 먼저 침투해 솔로 시내의 마을들을 통제권에 넣었고 나머지 부대들도 약속된 시간에 일제히 네덜란드군의 병영들을 공격해 들어갔다. 공화국군은 즈브레스의 KL402 사령부, 주룩, 자갈란, 발라뻬 등의 초소들, 그리고 반자르사리 지역의 포병부대들을 목표로 했다.

둘째날인 8월 8일, 하루 종일 지속된 교전은 한밤중까지 이어졌고 공화국군은 빠사르끔방 지역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며 공격해 들어갔는데 역습에 나선 네덜란드군은 그 일대의 인도네시아인 26명을 사로잡았다. 그들중 학생군 병사는 한 명뿐이었고 나머지는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한 일반 주민들이었으나 네덜란드군은 여자 6명과 아동 8명을 포함해 총 24명을 그 자리에서 사살했다. 그 시점에서 SWK 100에서 105에 있던 전체 병력이 공세에 가담해 솔로 시내 전 거점들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아흐마디 소령을 대신해 슬라멧 리야디 중령이 야전지휘를 맡기 시작했다.

공화국군의 추가병력투입으로 SWK 106 부대는 더욱 네덜란드군을 밀어붙였고 제5여단 휘하부대들은 스마랑에서 출발한 네덜란드 지원군을 살라띠가에서 공격해 솔로로 입성하는 것을 성공적으로 저지했다. 네덜란드군은 전폭기 2대와 P-51 머스탱 전투기 4대를 동원해 라눗 빠나산(지금의 아디수마르모)에 공수부대를 낙하시켰지만 전세를 뒤집기엔 역부족이어서 솔로 전역의 네덜란드군은 수세에 몰려 포위되었고 시내에 공화국군이 진주했다.

8월 9일에 이르러 악이 반친 네덜란드군은 KST 특수부대의 지원을 받아 반격에 나서면서 군인,



1949년 7월 9일 유배에서 풀려나 족자에 돌아온 수까르노 대통령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마주치는 모든 인도네시아 남자들을 사살했다. 이 과정에서 벌어진 빠누라란 전투에서 제1연대 제1중대장 사히르 대위가 전사한다.

넷째날인 8월 10일 제5연대 제1방어선 지휘관 슬라멧 리야디 중령은 4일간의 공세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분산공격을 명령했다. 학생군 게릴라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고 전투는 휴전이 발효되는 1949년 8월 11일 00시00분까지 밤늦게 계속되었다. 공화국군은 결국 도시 전역을 수중에 넣을 수 있었다. 휴전발효시간이 되자 슬라멧 리야디 중령은 정전협정에 따라 SWK 106 지휘관 아흐마디 소령에게 전병력을 도시 경계선으로 불러들이도록 명령했다. 하지만 그 명령은 간단히 수행되지 않았다. 휴전이 발효된 당일에도 양측간 교전이 간헐적으로 벌어졌고 네덜란드군 그린베레 특전대(KST)가 가뿌라가딩 지역의 공화국 적 집자시설을 공격해 적집자 직원 14명과 피란민 8명을 무차별 학살한 사건은 고의성이 다분했다. 그들은 발포음이 나지 않도록 총기를 사용하지 않고 모두 대검이나 둔기로 살해하는 무자비한 방법을 썼다. 이미 휴전이 발효된 8월 11일 아침 11시경에도 네덜란드군은 앞서 전사한 동료들의 복수를 한다며 빠사르낭카의 주민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36명을 집박으로 끌어들 무차별 학살했는데 그중엔 여자 5명과 아기 1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아흐마디 소령도 리야디 중령의 명령에 불복하며 주민들의 안녕과 질서를 해하는 네덜란드군의 적대행위에 대해 각 섹터 지휘관들이 상응하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라는, 휴전협정과는 상반되는 명령을 내렸다. 8월 11일 당일 족자의 병석에 누워있던 지역사령관 가뭏 수브로또 대령에게서 정식 휴전지시가 내려오지 않은 가운데 휴전협정 위반사건들이 속출하고 있었다. 휴전을 명한 전군사령관 수디르만 장군의 8월 3일자 명령서를 따르려는 리야디 중령과 전투명령 해제를 내리지 않은 지역사령

관 가뭏 수브로또 대령의 종전 교전명령을 따르겠다는 아흐마디 소령의 하극상으로 인도네시아군은 내분상황으로까지 치달렸다. 상황이 악화되자 반올대령과 리야디 중령이 공식 접촉을 통해 휴전조건을 별도로 정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는데 아흐마디 소령은 이마저 불복하고 나섰다. 그러나 상황보고를 받은 족자의 가뭏 수브로또 대령이 급히 휴전명령을 하달하면서 사태는 급히 일단락 된다.

수라카르타 총공세가 진행되면서 109채의 집들이 불탔고 205명의 민간인들이 네덜란드군에게 학살당했다. 반면 정작 군인들은 네덜란드측 7명, 공화국측 6명의 전사자가 나왔을 뿐이었다. 불과 5개월 전 1949년 3월 1일 대패했던 족자 총공격 작전에 비해 공화국군은 강력한 화력과 조직력을 가진 네덜란드군을 상대로 괄목할 만큼 사상자를 줄이면서 솔로를 탈환해 내는 역량을 보여주었는데 이것은 그사이 공화국군의 전투력과 사기가 크게 향상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브레덴 장군은 자카르타에서 로빈크 고등판무관을 만나 솔로의 상황을 전하며 공화국군의 휴전협정 위반이라 강조했다. 그는 즉각 세 번째 ‘경찰행동’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지만 로빈크는 이를 단번에 거부했다. 그는 솔로에서 공화국군 공세에 밀려 도시를 내어주고만 현지 네덜란드군의 역량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다.

8월 7일 총공세를 비롯하여 학생군이 중심이 된 공화국군의 세 차례 수라카르타(솔로) 공격은 네덜란드와의 협상에 있어 공화국의 입지를 유리하게 했다. 더욱이 가장 엄중한 방어력을 갖추었다고 평가되던 솔로를 훨씬 열악한 장비를 가진 공화국군에게 밀려 내주었던 사실은 이제 네덜란드가 군사적으로도 인도네시아를 쉽게 이기지 못할 것임을 시사했고 공화국군에 대한 현지 주민들의 지원과 슬라멧 리야디 중령 같은 야전지휘관들의 활약이 돋보였던 사건이었다.

다음호에 계속



2019 년 4월 월간 뉴스 브리핑

제공:자카르타경제신문(pagi.co.id)

인도네시아 스타트업 증가…유니콘 넘어 ‘데카콘’ 꿈꾼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창업 지원으로 기업 가치가 고속성장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16일 자카르타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창조경제청(Bekraf)은 정부와 기업의 디지털 솔루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올해 스타트업 수는 20-30% 더 늘어났다고 밝혔다. 높은 인터넷 보급률, 중산층 인구 확대, 소득 증가 등이 스타트업 환경 개선에 기여한 요인이었다.

창조경제청의 비금융부문 디렉터는 “현재 정부와 기업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스타트업이 제안한 디지털 솔루션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현재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보급률이 높은 점도 긍정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중산층 인구는 1억 4,000만 명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소득이 늘어나면 수요가 증가하고 시장 규모가 커지면 스타트업도 자연스럽게 활발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가 스타트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벤처 캐피탈 등 다양한 자본과의 협력이 필요해 보인다.

창조경제청 관계자는 “적절한 금융 지원을 받지 못해 실패하는 스타트업도 많다”며 “정부 혼자서 이들을 모두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이고, 벤처 캐피탈의 자금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7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스타트업 투자 규모는 약 30억 달러(한화 약 3조원)로 5년 전보다 60배 더 증가했으며, 배차 앱 고젝(Gojek), 전자상거래(EC) 사이트 토코페디아(Tokopedia)와 부칼라팍(Bukalapak), 여행 사이트 트래블로카(Traveloka) 등 4개사가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으로 성장했다.

한편 고젝은 지난 5일 인도네시아 최초로 기업 가치 100억 달러를 달성해 ‘데카콘’ 타이틀을 획득했다. 이로써 고젝은 싱가포르에 본부를 둔 동남아시아 최대 차량호출 업체인 그랩(Grab)에 이어 데카콘 타이틀을 획득한 두 번째 회사가 됐다.

재무부, 수출 VAT 면제 부문 10개로 확대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2일, 부가가치세(VAT) 면제 적용되는 서비스 수출 분야를 정한 재무장관령을 개정하고 기존의 3개 분야에서 10개 분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서비스 수출 분야의 경쟁력 확대와 서비스 무역 수지의 개선을 도모한다.

재무부는 3월 29일자로 재무장관령 ‘2019년 제32호’를 제정했다. VAT 비과세 분야를 ◇외주 가공, ◇수리·정비, ◇화물 운송, ◇건설 컨설턴트, ◇IT, ◇연구 개발, ◇항공기·선박 임대, ◇각종 컨설턴트, ◇무역, ◇위성 통신과 데이터 간 상호 연결 분야이다.

개정령 제정에 따라 기존의 재무장관령 ‘2010년 제70호’와 개정령 ‘2011년 제30호’는 폐지됐다. 기존의 재무장관령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설정했던 분야는 외주 가공, 수리·정비, 건설 등 3개 분야였다.

한편, VAT 면제 조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가격 등을 기재한 계약서와 수입자가 합의한 지불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10% VAT가 부과된다.

수카르노-하따 국제공항 정시운항률 세계 25위로 급상승



영국의 항공운항 정보 업체인 OAG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수카르노-하따 국제공항의 2월 정시운항률(OTP)은 93.8%로 세계 25위였다. 1월 90.4%, 96위에서 급상승했다.

현지 언론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7일자 보도에 따

르면 수카르노-하따 국제공항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연속 OTP가 90% 이상이였다. 11월에는 OTP가 65.9%로 세계 1,085위였다.

2월의 비행 취소율은 1.4%로 1월의 3.0%에서 개선됐다. 운항편은 1만 6,093편으로 세계 18위를 기록했다. 1월부터 4계단 하락했다.

경영자협회 Apindo '조꼬위 재선' 희망 표명



인도네시아 기업들이 경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현직 대통령인 조꼬 위도도(일명 조꼬위) 대통령의 재선을 더 희망하고 있다.

15일 현지 언론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17일 대선을 실시한 인도네시아는 선거 결과에 따라 오는 10월 20일에 대통령 취임식을 거행한다. 투표와 공식 취임 사이에 무려 6개월의 간극이 발생하는 셈인데, 문제는 투표에서 승리한 차기 대통령이 취임식 전까지는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수도 시행할 수도 없다는 점이다.

아프마자야 대학의 아구띠누스 브레세판또 교수는 “투표와 취임식 사이의 기간이 길수록 정국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가 새로운 경제 로드맵을 구상하더라도 차기 대통령과 부통령은 10월 전까지 아무것도 시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Apindo는 정부에 기업인들의 희망과 권고 등을 반영한 ‘경제 로드맵’을 작성한다. 이 로드맵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가경제의 회복을 위한 더 나은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Apindo 측의 설명이다.

Apindo의 하리야디 의장은 “조꼬위 대통령은 지금까지 많은 지역에서 산업지대를 확장하고,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 2015년에 169개국에 무비자정책을 실시하는 등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조꼬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취임식까지 어떠한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누가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차기 행정부는 더 나은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줄이기를 희망한다”면서도 “현직이 아닌 다른 이가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기업들은 새 대통령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리보 찌까랑, 라이츠 이슈로 2억 달러 자금조달... 메이까르따 사업에 일부 투입

인도네시아의 복합 기업 리보 그룹(Lippo Group) 산하의 부동산 개발회사 리보 찌까랑(PT Lippo Cikarang)은 18일 이날 열린 연례 주주총회에서 2억 달러 규모의 라이츠 이슈(신주 예약권 무상 할당)에 따른 증자를 실시하는 건에 대해 주주들의 승인을 얻었다고 밝혔다.

조달 자금은 자기자본 확충과 더불어 서부 자바 찌까랑의 대형도시개발사업 ‘메이까르따(Meikarta)’에도 일부 투자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라이츠 이슈는 금융감독청(OJK)의 승인을 얻어 3분기(7~9월)에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메이까르따 사업을 둘러싸고 리보 그룹의 빌리 신도로 전 이사가 메이까르따 사업의 건설 허가 발급에 편의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브카시 군수 등에 뇌물을 준 것으로 밝혀져, 재판부는 뇌물죄로 금고 3년 6개월에 벌금 1억 루피아를 선고했다.

현지 언론 끈판 20일자 보도에 따르면 리보 찌까랑의 시몬 수비안또 대표이사는 메이까르따 사업에 대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원활하게 진행 중이다”며 “제1기 공사에 28동의 아파트를 건설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회사의 2018년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47% 증가한 2조 2,100억 루피아, 순이익은 6배인 2조 2,210억 루피아였다.

블루버드, 국내 최초 EV 택시 도입

인도네시아 최대 택시 그룹 블루버드(Bluebird)는 22일, 전기자동차(EV)를 국내 최초로 택시 차량에 도입했다고 발표했다. 다음달부터 사용한다.

현지 언론 드릭 22일자 보도에 따르면 블루버드 EV에 중국의 최대 친환경 기업 비야디(BYD)의 다목적 차량(MPV) ‘E6’과 미국 테슬라의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 ‘모델X’, ‘75D’를 도입한다. 일반 택시 ‘블루버드’와 고급 택시 ‘실버 버드’에 사용된다.

블루버드의 아드리안또 이사는 “제1차로 E6를 25대, 75D를 4대 조달했다. 비용은 총 400억 루

피아에 달했다. 2020년까지 200대, 그 후 2025년에는 2,000대까지 늘릴 계획이다”라고 언급했다.

택시 요금에 대해 아드리안또 이사는 “EV 충전은 가솔린보다 저렴하지만, 현재 차량 자체가 고가여서 당분간은 가솔린 차와 동일한 요금으로 받는다”라고 덧붙였다.

자카르타
경제신문
Jakarta Biz Weekly



VS

1

1. 김홍도의 <포의풍류도>. 당비파를 연주하는 선비 주변으로 서책 상자, 두루마리를 만 서화 권, 금이 간 쌍이병(雙耳瓶) 등 서화골동품이 배치돼 있다. 18~19세기 조선 사회를 휩쓴 서화골동품수집 문화를 잘 보여주는 그림이다. <한국데이터진흥원>

2. 신분제가 사라진 현대 사회에서 명품은 계층 상승감을 안겨주는 '경제적 신분증명서'가 됐다.



2

과시적 소비, 고금을 관통하는 욕망을 들여다보다

최 근 터키 리라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현지에선 명품대란이 일어났다. 수도 이스탄불의 샤넬, 루이비통 등 럭셔리 매장마다 명품을 싸게 사려는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히잡을 쓴 쿠웨이트 중년 여성이 로고가 박힌 쇼핑백을 주렁주렁 든 채 “옷도 사고, 화장품도 샀다”며 득의만만한 표정으로 인터뷰하는 모습을 TV에서 봤을 것이다. 국내서도 여행사마다 터키로 명품 쇼핑 관광을 떠나려는 이들의 문의가 넘쳤다고 한다. 인터넷을 통해 직접 구매하려는 움직임도 일어나며 포털 사이트에는 ‘터키 리라화’ ‘터키 버버리’ ‘터키 항공기’ ‘터키 직구’ 등 관련어들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다. 여성 육아 카페에서는 ‘국내 버버리 트렌치코트 200만 원대 터키 홈페이지에선 70, 80만원대… 반의 반값 대박’ 같은 구매 정보가 오갔다.

글. 손영옥(국민일보 문화부 선임기자 · 미술경영학 박사)

명품이 무엇이기에...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란 농담도 있다지만, 명품선호 탓에 ‘웃픈 풍경’이 벌어진 것이다. 명품이 튀기에 타국의 위기 상황조차 쇼핑 기회로 삼아 장만하려는 것일까.

명품 소비는 과거 유럽 귀족사회의 전유물이었다. 그러다 일반인에게로, 비유럽으로 퍼져나가며 세계적 현상이 됐다. 특히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3국의 명품 사랑은 유명하다. 유럽 명품 브랜드들이 아시아인을 상대로 타깃 마케팅을 펼칠 정도다.

라다 차다와 폴 허즈번드는 2007년 출간된 「럭스폴로전」이라는 책에서 아시아인의 명품 열광의 이면을 분석한 바 있다. 브랜드 기업이 자사 제품에 대해 어떻게 ‘신분 상징’의 기능을 과장하고, 마케팅하면서 열렬한 명품 추종자 계층을 형성시키는지 그 내막을 흥미진진하게 보여준다. 저자들은 특히 한·중·일 3국의 미묘한 소비 심리 차이를 분석했다. 중국은 명품 브랜드가 소비자의 경제 수준을 드러내는 상징물이 된다는 이유로, 일본은 왕따 당하기 싫어하는 동조 의식 탓에, 한국은 타인보다 앞서야 한다는 경쟁심으로 인해 명품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명품에 대한 열광의 이면에는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가 설파한 ‘구별짓기’가 작동한다. 신분제가 사라진 현대 사회에서 명품은 계층 상승감을 안겨주는 ‘경제적 신분증명서’가 됐다. 몽블랑 만년필, 샤넬 백, 페라가모 구두, 에르메스 스카프는 타인과 나를 가장 효과적으로 차별화시켜주는 시각적 심벌인 셈이다. 과시적 소비는 스스로 노동하지 않아도 되는 유한계급임을 보여주는 가장 효과적인 증명 수단이라고 미국 사회학자 소스타인 베블런이 저서 『유한계급론』에서 주장한 바와 같은 맥락이다. 그러니 중년 여성 모임에서 남편이 명품 가방을 사줬네 안 사줬네가 이슈가 된다. 스스로의 경제력으로 사기에는 무리인 직장 초년생은 물론 돈을 벌지 않는 여대생도 신용카드를 긁어서라도 100만원 대 명품 가방 하나쯤은 갖고 있기 마련이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요즘에는 명품 구매 여성 연령층이 낮아지고 남성들도 구매 대열에 합류함에 따라 해외 명품이 지난 4년간 매년 5~18%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명품 열광만큼 짝퉁 수요도 증가하는 것 같다. 2017년 기준으로 지난 5년간 관세청에서 적발한 ‘짝퉁’ 제품의 금액이 2조8,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디 명품 의류나 명품 가방뿐인가. 아파트, 자가용, 유치원과 학교와 먹거리까지도 현시욕이 작동한다.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대한한공 총수 일가가 승무원을 통해 밀반입한 품목에는 채소, 과일도 포함돼 있었다.

조선시대서화·골동품

조선의 부잣집 양반들, 물 건너온 물건을 탐하다

그렇다면 명품에 대한 열망은 현대의 산물일까. 절제와 검양의 유교적 덕목이 강조되던 조선시대에는 어땠을까. 타임머신을 타고 200여 년을 거슬러 18~19세기 한양의 으리으리한 양반집 사랑채 풍경을 들여다본다면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은 당시 풍경이 펼쳐져 깜짝 놀랄 것이다. 수천만 원짜리 에르메스 가방, 수백만 원짜리 프랑스 와인과 까르띠에 시계 대신에 조선시대 부잣집 양반들이 신분과 부를 과시하기 위해 가산을 탕진하면서까지 사고자 했던 품목들은 따로 있다. 거의가 조선이 사대했던 ‘선진국 중국’에서 건너온 물건들이었다. 고가의 서화와 골동품, 벼루와 연적 같은 문방구가 그런 사치품목에 해당했다.



3



4



5



6

3. 각 폭마다 각종 꽃과 새를 다채롭게 그린 『화조도 병풍』
국립고궁박물관
4. 대나무, 소나무, 영지 등의 십장생 문양이 양각되어 있는 십장생문 버루
국립민속박물관

5. 몸체 윗면에 코끼리와 짐 모양의 장식이 달려 있는 연적
국립민속박물관
6. 구름 사이로 용이 약동하는 모습이 그려있는 백자화용무늬병
국립고궁박물관

땡땡거리며 사는 부잣집에서는 안건, 김시 같은 조선의 유명 서화가나 중국 북경에서 비싼 값에 구한 당 송과 명청의 명화를 걸어두고 보는 것이 낯설지 않은 풍경이 돼 버렸다. 양반층은 물론 중인층에까지 몰아쳤던 서화골동품수집과 감상 열기의 이면에는 소비를 통한 과시의 욕망이 숨어 있었다. 필자는 조선시대를 관통한 서화 골동품 수집 문화를 줄져 「조선의 그림 수집가들」을 통해 소개한 바 있다.

영조 때 사람인 상고당 김광수(金光遂, 1699~1770)는 그런 수집 열풍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었다. 그의 아버지와 두 형제 모두 판서와 군수를 지내는 등 벼슬을 했다. 유독 둘째인 그만은 진사시(예비 과거)에 합격했음에도 대과를 보지 않고 한량처럼 지내며 수집취미에 빠졌다. 중국에서 수입된 고대의 비석이나 종정(鍾鼎: 종과 솥)을 소장했고, 고가의 서화와 희귀한 서적을 수집했으며, 비싼 향을 피우고, 우전차(雨前茶)를 달여 마셨다. 대체로 중국 상류사회에서 즐기는 것들이었다. 그는 골동과 서화로서 아주 잘된 작품을 만나면 전답과 집을 계속 팔아서라도 구입했기에 가산을 탕진할 지경에 이르렀다. 남들의 비난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나는 이미 눈이 어두워졌다. 평생 눈으로 보았던 것이 이제 입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호기를 부렸다.

연암 박지원(朴趾源, 1737~1805)은 그런 그에 대해 과시적인 컬렉션 문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의 예로 실명을 거론하며 야유를 보냈다. “그가 판 가격은 산 가격의 십분의 이, 삼을 넘지 못했고, 이는 빠져서 이른바 입에 이바지 한 것이 모두 줌과 가루뿐이었다. 애석한 일이다. 애석한 일이다”라고.

상류층 문화를 모방하는 인간의 심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허례허식은 상류층 문화의 모방에서 기인한다. 서화골동품 수장 및 감상은 한양에서 대대로 벼슬을 하며 살았던 이른바 ‘경화세족’ 가문에서나 가능했던 양반 문화다. 이는 하위 계층의 모방심리를 낳으며 조선 후기로 가면서는 부유한 중인층과 서민층에까지 번졌다.

보는 눈이 없는 졸부들의 허영을 노린 위조품이 판치기는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 조선 후기 컬렉터 이하곤(李夏坤, 1677~1724)에 따르면 수입된 중국 남송대 화가 마원의 그림 가운데 태반이 가짜였다. 지적 허영으로 패가망신한 사례는 조선 순조 때 문인 조수삼(趙秀三, 1762~1849)이 당대의 풍속과 인물에 대해 쓴 문집 『추재기이(秋齋紀異)』 속 손 노인의 이야기가 잘 보여준다. 손노인은 한양에

사는 부자였다. 골동품이라면 사족을 못 썼으나 보는 안목이 없었다. 당연히 그에게 가짜 물건을 가져다주고 비싼 값을 받아 챙기는 거간꾼이 많았다. 결국 손 노인은 그 많은 재산을 거덜 내고 거지 신세가 됐다. 그럼에도 손 노인은 속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중국 한나라 시대 자기에 비싼 차를 달여 마시면서 “이것만으로도 굶주림과 추위를 몰아낼 수 있다”며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했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과시적 소비의 이면에는 자신이 갖추지 못한 부, 채우지 못한 교양을 가리고 싶은 심리, 그리고 열등의식이 숨어있다. 조선 후기 선비 이정섭(李廷燮, 1688~1744)의 비판은 무분별한 명품 사랑을 하고 있는 현대인에게도 교훈이 될 수 있을 듯하다. “요즘 사람들은 고서화를 많이 모으는 것을 고상한 취향으로 삼는다. (고서화로) 농을 가득 채우고, 대나무 상자가 넘치게 하여 보물처럼 자랑하며 주장한다. 스스로가 각기 서화에 견줄 수 없는 지극히 귀하고 소중한 것을 지니고 있음을 알지 못하니 어찌된 일인가.”

[월간 문화재 사랑]

연암 박지원

조선 후기에 새로운 시대 사상으로 등장한
실학사상의 한 조류인 북학 운동을 시작한
북학파의 영수이다.





Eastern Opulence (Woltermonginsidi)

글: 주윤지 (한국컨텐츠진흥원 인도네시아비즈니스센터)



올해도 어김없이 5월 가정의 달이 찾아왔습니다!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으로 5월은 1년 중 가장 바쁜 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인도네시아 식당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인도네시아 식당 <Eastern Opulence>는 한국 식당들이 즐비한 Jalan Wolter Monginsidi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 찾아가기도 수월합니다. (하얀 건물 2층으로 눈에 상당히 띄니다~) 2017년 말에 오픈 한 이 식당은 화려한 실내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 소규모의 모임 장소로 이미 현지인들에게 유명한 곳입니다. 2층은 VIP룸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각 룸마다 각기 다른 컨셉으로 되어있어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 잡습니다.

이제 시각뿐만 아니라 미각으로도 즐길 시간입니다~ 최근에 새로 나온 메뉴인 Duck Salad (78,000루피아++)로 가볍게 입맛을 돋굽니다. 오리고기가 아삭아삭 신선한 야채와 잘 어울려져 특유의 냄새도 전혀 안 나고, 잘게 찢겨져 있어 전혀 질기지가 않아요.

제가 강추드리는 이 곳의 시그니처 음식은 두둥두둥...바로 Salted Fish Crispy Kailan (75,000루피아++)입니다. 처음엔 음식 비주얼에 놀라고 그 다음은 맛에 놀라는 그런 음식이에요. Kailan을 튀겨 먹는다? 상상도 해 보지 못했는데요.

손이 가요~손이 가~♪ Kailan칩에 계속 손이 가요~정말 맥주 안주로 딱이에요@.@

비록 야채 반찬이지만 메인 메뉴에 버금하는 아우라를 가지고 있는 음식입니다! 꼭 주문해서 드셔보시기를 바래요~^^

가족들과 식사하는데 고기 반찬이 빠지면 매우 섭하죠. 그래서 Gyutan With Green Chilli Sambal (129,000루피아++)을 주문합니다. 이 음식은 우설을 녹색 삼발 소스에 조린 음식으로, 역시 우설인지라 고기가 매우 야들야들합니다. 고기에서 약간 탄 맛이 난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요~걱정마세요 그릴에서 구워서 그런 맛이 나는 거라고 하니깐요.

싱가포르 칠리크랩이 땡기는데 음식 양이나 가격이 살짝 부담스러울 때, 이 식당의 Singaporean Chili Soft Shell Crab (159,000루피아++)이 두 마리 토끼를 다 만족해 줍니다. 음식 양도 적당하고 음식 가격도 적당해요~ 무엇보다도 칠리소스가 굿굿! 너무 맵지도 않고 너무 새콤달콤하지도 않아 밥에 비벼 먹기에 아주 적당해요. 특히 크랩 껍질이 부드러워 어린이들이 먹기에 불편하지도 않고요.

요새 Zomato Gold 프로모션으로 1+1(Food) 행사 중이라고 하니 Zomato Gold 회원이신 분들, 이번 기회에 꼭 한번 가보세요~

다음 호에서도 유익한 맛집 정보로 찾아 뵙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식당 정보 : Eastern Opulence>

음식 종류 : 인도네시아 음식

가격대 : Rp 500,000 / 2인 기준

영업시간 : 월-일 10:00 ~ 23:00

전화번호 : 021-2708-12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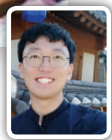
위치 : Jalan Cipaku I No.85,
Petogogan, Kebayoran Baru
Jakarta Selatan

Zomato 참고

관찮아요, Tidak apa-apa



오기택 / 반동 거주



‘Tidak apa-apa’
오늘도 어김없이 듣게 되는 이 말,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면서 가장 어렵고 낯설게 다가온 것은 그들의 ‘Tidak apa-apa’ 문화였다. 기분이 좋아도, 기분이 나빠도 그들은 항상 웃는 얼굴로 ‘Tidak apa-apa’를 말했다. 처음에는 내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내가 못 알아들었을 거라 생각해서 무시하는 말로 생각했었다. 한국사람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할 때에는 도저히 그냥 웃어넘길 수 없는 일이었음에도 그들은 그저 웃으며 ‘Tidak apa-apa’라고 말했다. 도대체 그들에게 ‘Tidak apa-apa’는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말하는 ‘Tidak apa-apa’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 이 문구에 대한 이해를 위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이 말을 쓰는 경우를 생각해보았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있어서 ‘Tidak apa-apa’는 주로 ‘괜찮다, 대수롭지 않다’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었다. 상대방이 실수를 해도, 무엇인가가 조금 부족해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음에도, 그들은 연신 ‘Tidak apa-apa’를 말하곤 했다.

그런 인도네시아인들의 인내가 한국인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 정말 답답해 보였다. 무슨 마법의 주문을 외우는 것인 양, ‘Tidak apa-apa’를 외치면 문제는 일단 일단락되기 때문이다. 나도 그 마법의 주문을 외우고 싶었으나, 머리와 가슴속으로 이해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해 ‘Tidak apa-apa’에 대한 답답한 감정이 먼저 솟아올랐다. 하지만 이곳은 인도네시아가 아닌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라는 말이 있듯 나는 인도네시아의 문화와, 이곳 사람들의 태도와 방식을 이해하고 인도네시아에 동화되어야 했다. 어떤 문화적 다름에서 ‘Tidak apa-apa’에 대한 이해가 시작될 수 있을까. 왜 나는 ‘Tidak apa-apa’할 수 없는 것일까? 그러다 문득,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여유’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인도네시아에 처음 왔을 때,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얼굴에는 항상 웃음기가 가득했으며 더불어 표정에서 많은 여유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들은 도통 얼굴을 찡그리는 법이 없었다. 항상 웃고 있었으며, 항상 친절하게 응대해주었다. 이러한 긍정적인 삶의

관점과 여유는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 그리고 나는 왜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며, 그들처럼 할 수 없는 걸까?

어쩌면 우리의 생활태도와 방식이 ‘여유’를 배척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한국의 문화를 돌아보면 가만히 있는 것을 두려워하며, 당장 하는 일이 없을 경우 도태되었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인생에서 ‘나’라는 관점보다는 ‘대중 속의 나’라는 관점이 우리들 사고방식에는 더 뿌리깊게 박혀 있었다. 나라는 존재여서의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 나의 가치가 정립되기에 내가 존재하며 그렇게 정립된 가치가 어느 순간 나라는 사람의 자아가 되어버렸다. 이렇다 보니 남과 비교되어 남의 우위에 있을 경우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렇기에 자아의 존립과 정립을 위해서라도 뒤쳐질 수 없었다. 뒤쳐짐은 곧 내 존재의 ‘무의미’를 뜻하게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적 차이 때문에, 한국인들의 마음 한켠에는 ‘여유’라는 단어가 머물 만한 공간이 없었다. ‘여유’는 사치였으며, ‘여유’를 꿈꾸기 전에 남들보다 앞서는 게 먼저였다. 이러한 타인중

심적 사고관에 질리고, 자신의 본질에 대한 생각에 집중하게 되며 등장한 개념이 ‘워라벨’이라는 개념 같다. 무한경쟁에 지친, 더 이상 남과의 비교에 신물이 난 사람들이 ‘나’라는 자아를 돌아보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인생에서 ‘나’라는 가치가 가장 부각되어 발생한 현상이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의 ‘Tidak apa-apa’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만의 ‘워라벨’을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그들이 여유를 가지고 있고, 남에게 친절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나의 욕구가 충족되기에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며, 그 결과 나 자신이 중요한 만큼 상대방도 중요하다는 역지사지의 생각을 할 여유가 생길 수 있게 된 거 같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Tidak apa-apa’는 어쩌면 자신의 행복에 대한 외부적 선언이라고 할 수도 있다. 본인의 지금 인생이 행복하기에 주위의 어떤 일에도 관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주위의 반응에 의해 크게 흥분하거나 화를 내지 않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남에 대한 배려로 ‘Tidak apa-apa’가 아닌, 나의 행복에 초점을 둔 ‘Tidak apa-apa’를 사용했던 것이다. 그렇게까지 생각이 닿다 보니, 인도네시아의 ‘Tidak apa-apa’ 문화는 타인에 초점을 맞춘 문화이기보다는 자신의 행복에 더 초점을 맞춘 문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이제 막 시작한 인도네시아의 생활에서 더 많은 행복과 더 큰 즐거움을 얻으며 살아가 봐야겠다.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은 자신이 만족함을 느꼈을 때 비로소 발현이 가능하다. 그들을 이해함과 동시에 내 스스로도 더 행복해지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Tidak apa-apa’는 타인에 대한 배려의 표현이 아니었다. ‘Tidak apa-apa’야말로 진정한 자기 행복에서 비롯된 기쁨의 비명이자 나의 행복에서 오는 타인에 대한 여유의 표현이리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Barus 지역에서 사망한 신라 승려 두 사람의 여정에 대하여



죽자카르타, 보로부두르

김영수 (한인니문화연구원 특임연구원)

들어가는 말

인도에서 발흥한 후 중국을 거쳐 한반도에 유입된 불교는 우리 민족의 다난한 역사의 흐름과 궤를 같이 하면서 그 뿌리를 굳건히 내리게 된다. 삼국이 한반도에 정립을 준비하던 시기에 전파되어진 불교에 대해 우리 민족은 이전의 정령숭배, 주술 등 원시 종교의 행태에서 벗어나 인간 심성과 영혼을 제도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받아 드렸다. 또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출가와 득도를 통해 우리 민족의 정체성 속에서 불교가 꽃 피울 수 있게 했고, 심오한 불교의 교리가 체계화 될 수 있게 그 밑거름이 되었다. 한편, 구법의 열망과 득도의 한 과정으로 한반도 삼국 시기에 한국의 많은 승려들이 당시 천축국인 지금의 인도로 목숨을 건 순례를 단행하게 된다. 이중 신라 승려 혜초(慧超)처럼 그의 순례기나 간단한 행적을 남겨 후대에 이름을 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구법의 순례길 위에서 흔적 없이 입적한 예를 우리는 발견하고 있다. 이중, 중국 당 나라 승려인 의정(義淨)

(653-713)이 쓴 『대당서역구법고승전』에 언급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Barus 지역에서 사망한 신라 승려 두 사람도 이름을 남기지 못한 채 사라진 예라고 할 수 있다.

『대당서역구법고승전』에 따르면 ‘復有新羅僧二人，莫智其諱，發自長安，遠之南海，汎舶至室利佛逝國西婆魯師國，遇疾俱亡’이라는 기록이 언급되어 있다. 즉 7세기 중엽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신라 승려 두 명이 중국 장안을 출발, 배를 이용하여 남쪽 바다를 지나 실리불서국에 도착, 그 서쪽인 파로사국에서 질병에 걸려 사망했다’라는 내용이 있다.

한편 중국 당 나라 때 사람인 매탐(賈耽)(730-805)의 ‘통해이도’를 보면 해상을 통한 오랑캐들과의 해상 교류도가 자세히 언급되어 있는데 이중 동남아 지역과 관련된 부분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 광주에서 동남향으로 200 리 바닷길을 따라 가면 둔문산에 도착하게 되고 다시 서쪽으로 2일 가면 구주석이 나오고 남쪽으로 2일 가면 상석에 이르게 된다. 다시 서남쪽으로 3일을 가면 점불노산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산은 환왕국 동쪽 200 리 거리에 있다. 다시 남쪽으로 2일 가면 능산, 또 하루거리에 문독국이 있으며 다시 2일을 가면 군돌농산이 나오고 거기서 5일쯤 가면 해협이 나오는데 이를 질이라 부른다. 이 해협은 남북 100 리이며 북쪽 해안은 나월국이며 남쪽은 불서국이다. 불서국에서 4, 5일 가면 가릉국이 나오는데 이 나라는 남쪽 지역에서 가장 큰 나라이다. 불서국을 떠나 서쪽으로 3일 가면 갈갈승지국에 도착한다. 이 나라 사람들은 성질이 포악하며 지나가는 배를 약탈하곤 한다. 이 나라에서 다시 서쪽으로 4, 5일 가면 승등주에 도착하고 다시 5일을 가면 파로국에 도착하게 되고 거기서 6일을 가면 파국, 가람주에 도착하게 된다.

위의 항로를 프랑스 동양학자인 펠리오(P. Pelliot)는 다음과 같이 고증하였다. 즉, 중국 광주에서 출발한 배는 주강을 따라 주강만을 거쳐 지금의 마카오 앞 바다로 나오게 된다. 그 후 남해도를 끼고 톡킹 만을 지나 베트남 북부 지역의 동부 해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 후 베트남의 동부 해안 지역인 퀴논 등을 거친 배는 베트남 남부에 있는 콘손 섬을 거치게 되는데 이 지역이 곤륜도이다. 이후 배는 싱가포르 해협을 거치게 되고 그 다음 항로로는 인도네시아 자바 지역으로 가는 바닷길과 말라카 해협으로 가는 항로로 양분되게 된다. 말라카 해협으로 접어든 배는 수마트라 팔렘방(빨렘방), 델리, 랑갯 지역 등을 거쳐 니코바르 군도를 향해 나가게 된다. 한편 자바 지역으로 향하는 항로는 자바의 북부 지역으로 향하는 뱃길과 순다 해협을 거쳐 수마트라 남부, 서부, 북부 지역으로 향하는 뱃길로 양분되게 된다.

파로사국과 장뇌 무역

중국 『신당서』를 보면 ‘室利佛逝, 一曰尸利佛誓, 過軍突弄山二千里, 地東西天里, 南北四千里而遠, 有城十四, 以二國合總, 西曰郎婆露斯’라고 언급하고 있다. 즉 실리불서 또는 시리불서는 베트남의 군돌농산을 지나 2천리 거리에 있으며 땅의 넓이는 동서 천리, 남북 4 천리에 달한다. 두 나라의 성(城)을 합치면 14개가 되며 그 서쪽을 랑파로사라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실리불서 또는 시리불서는 스리위자야(Sriwijaya)의 한자 음사이며 랑파로사는 Barus의 한자 음사이다.

지금의 수마트라 남부 지역인 팔렘방, 람땡, 미낭 까바우 지역을 스리위자야의 중심지라고 본다면 파로사국(Barus)은 수마트라 서부와 북부 지역인 따빠눌리와 아체를 그 지역의 중심이라 할 수 있다. 파로사 명칭은 인도네시아어 Barus의 중국어 음사이며 중국 기록에는 婆魯師 또는 婆露斯로 언급하고 있다. Barus의 어원을 역사 기록에서 살펴보면 아랍 상인들은 Barus 지역을 아랍어로 ‘쌀’을 의미하는 ‘우루스’ 또는 ‘루스’라고 지칭했는데 그 이유로는 Barus 지역에서 쌀이 많이 생산되는 사실을 지역 이름으로 명명했을 것으로 추론된다. 이는 현대 인도네시아어에 있어서 쌀을 의미하는 어휘가 브라스(beras)로 지칭되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Barus 지역의 연대기를 살펴보면 스리위자야보다 일찍 대외 무역을 왕성하게 했으며 그 배경에는 양질의 항구를 갖고 있어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니코바르 군도와 말라카 해협 그리고 순다 해협을 잇는 항로를 보유한 사실을 들 수 있다. 특히 지역 내에서 품질 좋은 장뇌가 대량 생산되어 수출이 이루어지면서 Barus의 교역 활동은 급속히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대외 교역의 결과로 600년경에는 콘스탄티노플로부터 기독교 일파인 Nestorian이

Barus 지역에 소개 되었으며 627년에는 이슬람 지도자인 Wahab bin Abi Qabsah가 도착하여 이슬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671년에는 의정이 Barus에 도착했고 684년부터는 아랍 상인들의 정착촌이 건설되기 시작했다.

Barus를 융성하게 하고 발전시킨 원동력은 대외 교역을 통한 경제력이 중심이었다. 그 교역의 가운데에 장뇌가 있었으며 Barus의 경제력은 장뇌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교역 물품이었다. 장뇌의 현재 국제적인 공용어는 camphor이며 범어인 karpura(羯布羅)의 음사이다. 인도네시아에 있어 장뇌의 주산지인 수마트라와 칼리만탄이다. 학명으로는 Dyrobalanops aromatika이며 오래전부터 향료와 의약품 재료로 귀중하게 사용되어졌다. 각종 염증과 통증 완화 그리고 정신을 맑게 하는 약재로도 활용되어졌다.

장뇌의 채취는 녹나무를 베어 그 조각을 증기에 쪄서 생기는 결정체 또는 액체 상태의 무색투명한 판상 결정체로 만든 것이다. 수마트라에 있어 녹나무의 밀생지대는 북위 3도 이상의 지역이며 특히 Barus 지역인 다이리, 끌라산, 싱켈 지역이 유명하다. 장뇌의 경제 가치는 마르코 폴로가 언급했듯이 고가의 수출품으로 Barus 경제의 원동력이 되고 부의 원천이 되었다. 또한 중국, 인도, 중국 등으로 활발하게 장뇌는 수출이 되었다. 따라서 상인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중국, 인도 등과 연결되는 Barus 교역의 국제 항로를 이용하였는데, 따라서 의정의 『대당서역구법고승전』에 언급된 신라 승려 두 명도 천축국(인도)로 향하는 배를 기다리다가 질병에 걸려 Barus에서 사망했을 높은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다.

사망 원인

신라 승려 두 사람의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 현재로서는 파악하기 어렵다. 그들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 『대당서역구법고승전』 이외의 자료는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기록인 『해동고승전』이나 『삼국유사』 등에도 본 신라 승려 두 사람에 대한 행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 그들의 사망 원인을 파악할 수가 없다. 단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대당서역구법고승전』 내용 중 ‘遇疾俱亡’이라는 기록을 해석함으로써 그들의 사망 원인을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그들의 사망 원인이 사고사가 아닌 질병에 의한 사망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신라 승려 두 명이 Barus에 도착하기 전 또는 도착 후 발병하여 그 질병의 원인으로 인해 사망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고사가 아니기 때문에 동시에 사망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그들의 사망 시기에 시차가 있었을 가능성을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그들의 사망 원인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상황으로는 현재도 인도네시아에 만연하고 있는 열대 풍토병 또는 전염병을 들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질병으로는 말라리아, 콜레라, 장티푸스, 뎅기열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전염성 높은 질병은 신라 승려 두 명이 Barus에 도착했을 당시 현지 의료 수준으로 보아 높은 치사율을 보이는 무서운 전염병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Barus에 도착

하기 전, 아니면 도착 후 질병에 걸린 신라 승려 두 명은 그 기간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사망에 이르기까지 Barus에 체류하면서 질병을 치료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들의 최종 목적지인 인도로 향하지 못하고 끝내 Barus에서 입적하게 된다.

나오는 말

지금까지 7세기 중엽, 천축국(인도) 순례를 서원하고 중국을 출발한 신라 승려 두 명의 행적을 그들의 이동 경로와 관련이 있는 당시 동남아 항로, 수마트라의 해양 왕국인 스리위자야 그리고 그들의 사망지인 Barus에 대해 의정의 『대당서역구법고승전』 기술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신라 승려 두 명은 그들보다 앞서 인도로 향한 승려들의 이동 경로를 따라 정관-영휘 연간인 7세기 중엽에 중국 장안을 출발하여 배를 탄 후 (승선지는 광주가 유력) 동남아, 남해 항로를 이용하여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동부, 남부에 세력을 두고 있던 해양 왕국 스리위자야(실리불서국 또는 시리불서국)에 기착 한 후 (또는 경유하지 않고), 수마트라 서부, 북부에 중심 세력을 두고 있던 Barus에 기착하게 된다. 그들은 인도, 중근동 그리고 중국으로의 장뇌 수출을 위해 국제항구가 있었던 Barus 지역에서 인도로 향하는 배를 기다리다가 열대 풍토병 또는 전염병인 말라리아, 콜레라, 장티푸스, 뎅기열 등의 질병에 걸려 현지에서 입적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들이 인도로 향하는 배를 기다리다가 사망했다면 사망지는 항구 지역이 유력하게 추론될 수 있으며 7세기 중엽 당시 Barus 지역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장뇌 대외 교역을 했던 라부뚜오 항구 지역이 사망 장소로 추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신라 승려 두 명의 최종 목적지는 불법을 구하기 위한 천축국(인도)로의 여정이었기 때문에 불교와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낮은 Barus 지역은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의정의 『대당서역구법고승전』 기록이 신라 승려 두 명의 출발지, 이동 경로, 사망지, 사망 원인만 간략하게 언급했고 여정 중간에 사망했기 때문에 그들이 갖는 불교사적 의미는 다른 순례 승려보다 상대적으로 뒤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신라 승려 두 사람이야말로 현존하는 문헌 기록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최초의 한국인이며 중국에서 수마트라까지 이어지는 바닷길을 처음 이용한 한국인으로 간주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6세기 중엽 인도 순례를 한 백제의 겸익이 있으나 그가 이용한 순례 경로가 해로인지 육로인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최초라는 수식어를 신라 승려 두 사람에게 부여해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서 7세기 중엽, 중국에서 바닷길을 이용하여 인도네시아 수마트라까지 간 신라 승려 두 사람의 여정을 파악하는 작업은 그들보다 수 십 년 후, 8세기 초엽에 바닷길을 이용하여 인도로 들어 간 후, 육로를 이용하여 당 나라로 돌아 온 혜초의 여정 복원을 체계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원본이 없고 필사본만 남아 있는 혜초의 『왕오천축국전』의 유실된 전반부 (중국에서 나형국까지)를 복원하는데 본 신라 승려 두 사람의 여정이 갖는 의미는 당 나라 승려인 혜림의 『일체경음의』 상권 『왕오천축국전』에 수록된 39개 어휘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김영수 : 서울 출생

- 한국외국어대학교 말레이-인도네시아어학과 졸업/비교문학박사(한국외국어대학교)
- KBS 국제방송 선임 PD 역임
- 제 8회 ‘인도네시아 이야기’ 인터넷 문학상 대상 수상 (주최 : 한인니문화연구원)
- 2018년 『창작 21』 신인상 수상으로 등단

G.R.O.W JKS, 2019 초등 교육과정 설명회 및 학부모 총회 개최

2019년 03월 29일(금),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교장 백우정)에서 재학생 및 예비 신입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설명회 및 학부모 총회가 열렸다.

이번 설명회는 담임 및 교과 교사에 대한 소개로 시작하여 학교장 인사 말씀,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교육과정 안내, 원어민 담임제 및 PBL 등의 외국어 교육과정 안내 및 학생생활교육안내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설명회 후에는 각 학급 담임 선생님과 면담과 학부모 총회가 이뤄졌다.

백우정 교장은 「배움을 즐기는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 육성」이라는 JIKS 교육 지표 아래, 질 높은 영어교육과 한국의 정체성교육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전 교직원들이 수업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더불어 국가, 학교, 학부모, 한인사회의 전폭적인 지원과 투명한 예산경영을 통해 학생들에게 최대한 지원이



영어교육과정 설명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JIKS가 GROW할 수 있도록 교사들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당부하였다.

설명회에 참가한 학부모들은 매년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학교에 관심과 긍정적인 기대를 갖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2019학년도 학부모 회장으로 선출된 곽수경 학부모님(6-2김동건)이 이끄는 학부모회가 조직되어 직스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다.



본교 교직원 소개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에서 '중등 학부모 총회' 및 '교육과정 설명회' 개최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이하 jiks) 중등부에서는 2019년 3월 28일(목) '학부모 총회' 및 '교육과정 설명회'를 개최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와 지역사회 등 공동체 발전을 위한 민주적인 학교의 운영과 발전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글로벌 소양을 갖춘 창의 인재 육성'을 표방하는 본교 중등 교육과정 설명회를 통해 학생은 행복하고, 학부모는 만족하며, 교사는 보람을 느끼는 학교로 발전하는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의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알아보는 뜻 깊은 자리를 가졌다.

2019 jiks의 중등 학부모 총회 및 교육과정 설명회는 본교 백우정 교장 선생님의 인사말씀과 윤일성 교감 선생님의 2019학년도 보직교사 소개로 시작되었다. 그 후 식순에 따라 학사일정 안내, 전체 교육과정 소개, 영어교육과정 소개, 학교발전 계획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학부모 총회 이후 각 학급 담임교사와 함께하는 학급별 모임으로 마무리 되었다. 2019 jiks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증가는 최소화하면서도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교과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교과목 운영을 통해 주당 수업시수를 35시간에서 39시간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나날이 변화하는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 주도적인 학생 육성을 위해 획일적인 지필평가의 비중을 낮추고, 다채로운 수행평가로 학생들의 창의력을 키우는 활동 중심 수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본교는 학생들의 영어 활용 능력 강화를 목표로 원어민 영어 교사가 지도하는 교과목을 큰 폭으로 증설 및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중학과정에서는 주당 Social Science(3), Science(4), English Language(5), English Literature(1) 등의 교과를 증설 및 신설하였고, 고등과정에서는 Business & Management, Humanities, Computer Science 등 영어 교육은 물론이고 다



양한 진학 및 진로 계획에 맞는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전 학년에 걸쳐 수준별 수업으로 운영하며 학생 수준에 따른 학급 이동이 자유롭게 보장되고, 7학년부터 11학년까지는 Cambridge의 체계적인 교과서 UNLOCK 시리즈 수업으로 말하기, 쓰기, 듣기의 종합적인 영어 실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12학년에서는 심화영어학습을 통해 고급수준의 이슈를 접하며 에세이 작성 및 토론 중심 수업으로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한 차원 높이는 수준 높은 교육이 실시된다.

각종 영어 경시대회와 글로벌 리더십 캠프 등의 대회 및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학생들의 영어 학습 동기를 유발, 영어 표현능력 및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바탕으로 영어 유창성과 논리적 사고력 향상을 갖춘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교 과정에서는 진로-진학 역량 강화를 위해 전 학년에 진로 과목을 1단위씩 편성하여 학생들의 진로 탐색 역량을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면서도, 대학 진학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전시켜 원하는 진학을 이룰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www.jiks.com)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氣) 골프로 싱글과 건강 지키기

골프가 몸에 익숙해지면 참 재미있다. 골프의 가장 큰 단점은 “너무 재미있다”와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라는 생각이다.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서 기(氣)를 활용할 경우 적어도 10타는 줄일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부수적으로 건강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특히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기를 쓰면” 연습이 부족해도 능히 싱글이 될 수 있다.

사람에게 병은 주로 혼탁해진 혈액에서 가장 먼저 생긴다고 한다. 혈액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단식, 채식, 생식, 운동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기” 수련이 으뜸이다. 이런 차원에서 운동과 기공, 나아가 치료까지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골프라는 운동이다. “기”는 사람을 변하게 만든다.

“기”가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을 살펴보자.

첫째, **면역력을 길러준다.**

몸에 기가 강하면 면역력이 강해져서 병에 걸리지 않는 체질을 만들어 주며, 병에 걸렸더라도 웬만한 병은 저절로 낫는다.

둘째, **마취력을 준다.**

기는 인내심을 길러 준다. 육체적인 통증조차 고통없이 이겨내게 한다.

셋째, **자신감을 준다.**

자신감은 정신력을 강하게 해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능력을 준다.

기가 강한 사람은 스트레스에 강하며 심신의 안정이 유지되고, 잠재 능력이 충만하여 창조적 사고가 생긴다.

골프를 기를 이용하지 않고 무조건 힘만 주어 치면 도로 병이 생긴다. 그러나 기로 골프를 하면 면역력과 마취력이 불편하던 몸까지 시원하게 풀어준다.

그러면 골프 동작 하나 하나를 살펴보자.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드레스” 자세일 것이다.

어드레스는 전통 무술이나 태권도의 기마자세, 궁수들의 사격자세, 검도의 기본자세 등과 같이 중요하다. 무술에서 이 자세들은 흠어진 기를 모으는 자세이다.

기마자세는 다음 단계의 동작에 들어가기 전에 취하는 가장 이상적인 기본자세로 중력을 버티고 서 있는 기를 모으는 자세이다. 이렇게 모아진 기의 힘으로 백 스윙, 다운 스윙, 임팩터, 팔로우스루, 피니쉬가 완벽하게 이뤄지게 된다. 즉 골프의 어드레스 자세 자체가 너무도 훌륭한 기 수련법인 것이다.

올바른 어드레스 자세에서는 단전호흡처럼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고 항문이 조여진다. 기가 강한 사람은 항문을 조이는 힘도 강한 법이다. 주말 골퍼는 반드시 어드레스를 수시로 반복해서 항문 괄약근의 힘을 기르고 기력도 길러야 한다.

매일 정확한 어드레스 자세를 100번만 반복해도 괄약근에 힘을 기를 수 있고 단전에도 기를 축적할 수 있다. 그 자세에서 조금만 낮추어 무릎과 엉덩이가 같은 높이가 되면 요즘 하체와 정력을 기르는 “케겔”의 자세와 같다. 가장 조심할 것은 기마자세에서 머리와 척추의 일직선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자세를 취하면 몸의 중심이 상체가 아닌 단전과 발바닥에 실리게 된다.

골프를 지금보다 더 잘치고 더 건강해 지고 싶다면 우선 몸을 유연하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라. 천천히 스윙을 반복하면 유연성 기공이 된다. 늘어나지 않는 고무줄로는 새총을 만들 수 없는 것과 같다. 어드레스를 정확히 하고 백 스윙을 천천히 제대로 하였으면 이제 스윙을 하여야 한다.



골프를 치는 사람은 누구나 우선 드라이버로 장타를 치고 싶어 한다.

장타를 치기 위해서는 단전에 중심을 잡고 어깨를 돌리면서 허리와 하체를 확고히 유지하는데 유의해야 한다. 또한 왼발로 급정지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다. 왼쪽 벽을 단단히 하여 회전을 하되 왼쪽으로 몸이 나가서는 안된다. 태권도의 강력한 파괴력과 골프의 임팩트는 왼발의 버팀이 있어야 파워 존이 생긴다.

그리고는 피니쉬가 되어야 한다. 골프에서는 피니쉬가 기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마지막 과정이다. 기공의 입장에서 좋은 피니쉬는 바로 몸의 건강과 직결된다.

백 스윙이 4분의 3 스윙 이더라도, 클럽 샤프트가 등을 두드리고 나올 만큼 충분한 피니쉬가 되면 그것으로 멋진 스윙이 되며 공은 한없이 멀리 날아 갈 것이다.

골프는 힘 빼기에 3년이 걸린다고 한다. 기공에서는 몸에 기를 운행시키면 저절로 힘이 빠진다. 기를 운행시키기 위해서는 호흡 조절이 기본이다. 단전호흡을 배운 사람들은 단전호흡을 하면 좋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의식적으로 호흡을

천천히 하기만 하여도 호흡이 아랫배로 내려가면서 힘이 어깨에서 아랫배로 내려와 뭉치게 된다. 골프를 기공으로 보면,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진다. 골프에서 흔히 말하는 힘 빼기는 기 골프에서는 단전에 기 모으기이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라운딩하는 4 시간 동안 단전호흡을 한다는 기분으로 골프를 쳐 보자. 달라진 자신의 샷에 놀라게 될 것이다.

기를 수련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단전호흡, 참선, 기도, 요가, 기공법, 시조 읊기, 가곡 부르기, 불경 독경, 등산, 조깅, 수영, 줄넘기, 에어로빅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이 가운데 골퍼에게 가장 강력하게 기를 붙여넣는 방법의 하나가 “단전호흡”이다.

단전호흡이 익숙하지 않으면 등산, 조깅이나 수영을 해도 좋다.

조깅의 경우는 40분 이상 할 때부터, 등산은 4시간 이상 걷는 경우, 수영은 2 Km 이상 할 경우 비로소 기가 운행되기 시작한다.

그 외 단식은 기 훈련의 좋은 방법이다.

골프 치는 날, 이기고 싶으면 적게 먹는 것이 좋다. 노년에는 근력 운동보다 순환기 운동이 좋다. 적게 먹고 산책과 등산 같은 심폐력을 강화하는 운동이 내부 순환기를 움직여 혈행을 좋게 해준다.

골프를 사랑하려면 반드시 건강부터 챙겨야 한다. 또한 늙지 않으려면 몸의 유연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몸의 유연성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365 마디의 뼈와 근육이 유연해야 함을 뜻한다. 음식도 우유같은 성장기 음식보다는 녹차나 발효 음식, 선식 같은 음식이 몸에 더 맞게 된다.

야생동물들은 죽을 때까지 몸의 유연성을 잃지 않기 때문에 사람처럼 빨리 노화하지 않는다. 동물들은 배가 부르면 절대로 더 먹지 않는다. 동물들의 습성을 그대로 따라하면 인간들만 걸리는 성인병에 걸리지 않고 장수 할 수 있다.

성인병의 근본 원인중 하나는 육식에서 생기는 과대한 노폐물이 체내에 축적되는데 있다. 채식은 몸을 가볍게 해주고 기를 채워준다.

육식을 하면 그날 당장은 여러 가지 효소 때문에 불포화지방산들이 몸속을 돌아 다니며 열을 내는 까닭으로 활력이 넘치지만 다음 날이면 그것들은 바로 지방과 불순물로 몸 한구석에 쌓이기 시작한다.

유연성을 회복하는 가장 쉬운 기공법 중의 하나는 “반신욕” 이 가장 좋다. 매일 아침 저녁 두 번씩 하면 놀라운 기운을 느낄 수 있다.

흔히 골프는 어렵다고 말하는데 이는 골프를 자기 자신에 대한 관리대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이다. 스스로 평가하고, 연습하고,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골프이다. 바람 탓, 캐디 탓, 남 탓을 하면 할수록 골프는 망가진다. 반대로 평소부터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닦고 자신에 맞는 최대한 올바른 스윙 폼으로 연습하면 그것이 필드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그 모든 것이 나 자신이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골프연습이 기 수련이 되는 것이며, 마음가짐에 따라 선(禪)과도 같은 수행이 되는 것이다. 기의 특징은 정신적으로는 집중력이고 육체적으로는 정력이다.

기 운동으로 골프 성적도 올리고, 체력도 증진 시키자.

(제공: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

발췌: 기 골프로 싱글 되는 법/ 정기인



KEB하나은행과 한인회, JIKS에 통학버스 지원금 기부



지난 4월 16일 오후 3시,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이하 JIKS) 다목적실에서 KEB하나은행, 한인회의 통학버스 기금 지원 행사가 열렸다. KEB하나은행에서 5억루피아, 한인회에서 3억 Rp를 지원하여 땅그랑 지역에 25인승 버스 1대, 찌까랑 지역에 25인승 버스 2대를 1년간 운영하게 되었다. 원거리 및 교통체증으로 인한 개인차량 운영의 어려움, 경제적 부담, 장시간 통학 등 3중, 4중고를 감내해야 했던 땅그랑, 찌까랑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너무나도 반갑고 고마운 일이다.

통학버스 지원은 지난 2018년 10월 JIKS 백우정교장이 KEB하나은행과 간담회에서 JIKS 학생들의 등하교 차량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고, 은행측에서 통학버스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또한 이 소식을 접한 JIKS 법인이사회 이사인 한인회 박재한 회장이 양영연 전한인회장에게 건의하면서 한인회에서도 지원하게 되었다.

이번 KEB하나은행과 한인회의 지원으로 학생들은 1학기에 Rp.3.500.000만 내고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2018년 Rp.9.000.000의 39%에 해당하는 것으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찌까랑은 통학버스비 부담으로 그동안 운행하지 못하다가 이번 지원금으로 2019년 3월부터 운행하게 되어 많은 학부모들이 고마움을 표하고 있다.

기부행사장에서 KEB하나은행 박종진 부행장은 'JIKS가 미래사회의 주역인 우리 학생들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큰 그릇, 홀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일을 이루고 소통할 줄 아는 인재를 키우기를 바란다' 고 했다. 박재한 한인회 회장은 JIKS는 인니 한인교육의 중심이므로 한인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통학버스 지원 프로그램을 2019년 한 해 만 시행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운영하고, 10대의 차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보자' 고 했다.

본 행사에는 JIKS 학교법인 이사회, 학교운영위원회, 성정장학금 수혜자 학생 25명, 학부모들이 참석하였다.어렵게 시작한 통학버스 지원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한인사회의 협력과 소통이 한인교육의 견인차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제공: JI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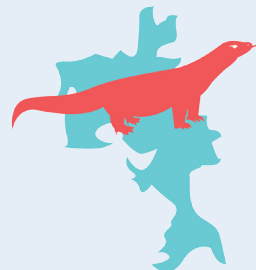
나는 바하사로 수다댄다

민선희

『유창한 회화를 위한 열공 인도네시아어 문법』 저자

한 사람과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한평생 사는 시대가 지나간 걸까요. 결혼 할 의지가 없는 ‘비혼’ 이나 부부가 서로의 삶에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보자는 ‘줄혼’ 이라는 말은 유명해진 지 오래고요. 별거와는 다르게 잠시 떨어져 지내며 결혼을 쉬어 가는 ‘휴혼’ 도 있고요. 선진국에선 부부가 따로 살면서 어려울 때 서로 도움을 주는 LAT(Live Apart Together)족도 있다고 하는데, 결혼 형태가 정말 다양해 졌다는 걸 느껴요. 하지만 옆구리가 허전한 싱글들에게는 결혼은 먼 얘기죠. 찾으려면 찾을수록 더 멀어지는 느낌이랄까.... (눈물 또르르...)

남자친구를 소개시켜 준답시고 에도(Edo)가 사니(Sani)에게 이상형을 묻는데... 사니는 어째 시큰둥 해 보이네요. 이번 호에서는 연애와 관련된 표현을 함께 공부해 봐요. 바하사로 수다떠는 그날까지 열공~!



Edo San, cowok idamanmu seperti apa?
산, 너 이상형이 어떻게 돼?

Apa ya...? Banyak sih.. kriteriaku haha. Tapi,
yang paling penting itu, harus bisa nyambung.
뭐랄까... 조건이 많은데 ㅎㅎ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말이 통해야지.

Sani

Edo Ya... itu penting. Kalau umur?
Dia harus lebih tua atau gimana?
그거 중요하지. 나이는? 너보다 많아야 해?

Kalau umur sih enggak masalah asal bisa saling menghargai.
Emang kenapa tanya cowok idaman segala?
나이는 뭐.. 문제가 안 돼. 서로 존중만 할 수 있으면. 근데 이상형
을 다 묻고 그래?

Sani

Edo Enggak apa-apa. Siapa tahu aku bisa kenalin cowok ke kamu.
그냥. 혹시 알아 내가 너한테 남자 소개 시켜 줄지?

O ya?Hahaha. Emang banyak teman cowok yang single?
Bukannya teman-temanmu udah pada nikah?
그래? 하하하. 싱글인 친구들 많아? 네 친구들 다들 결혼한 거 아냐?

Sani

Edo Banyak sekali yang single, Sani. Zaman sekarang udah beda kan.
Menikah itu pilihan, bukan kewajiban.
싱글 되게 많아. 요즘은 시대가 달라졌잖아. 결혼은 선택이라고. 의무가 아니라.

Betul, aku setuju banget.
맞아. 완전 동의해.

Sani

Edo San, kamu kenapa enggak cari cowok di Korea aja?
너 왜 한국에서 남자 안 찾아?



Emangnya cari cowok segampang itu? Kalaupun aku ketemu
cowok yang aku suka, belum tentu dia suka sama aku.
남자 찾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쉽냐? 내가 좋아하는 남자를 만난다 해도 그
남자가 나를 좋아할지는 또 별개의 문제지.

Sani

Edo Iya sih. Kalau kita ketemu orang yang cocok dengan kita,
beruntung banget.
그건 그래. 잘 맞는 사람 만나는 것도 정말 운이야.

Orang Indonesia kan sering bilang “jodoh enggak akan ke mana.”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이런 말 자주 하잖아 “짝은 어디 안 간다” 고. 어딘가
엔 있다고.

Sani

Edo Iya. Rasanya enggak pas buat kamu maksudnya? haha
응. 근데 너한테 아닌 거 간단 말이야? 하하

Aku sampe bosan dengerinnya. Tapi aku percaya kok.
Harus percaya. Haha
귀가 닳도록 들었지. 근데 나 그 말 믿어. 믿어야지 암... 하하

Sani



바하사로 수다 떨기

돋보기

belum tentu

확실하지 않다, 꼭 그렇다고 볼 순 없다

Walaupun punya banyak pengalaman, belum tentu diterima.
경험이 많아도, 반드시 합격한다고는 볼 수 없어.

Kalaupun sudah janji, belum tentu datang.
약속을 했다 해도 반드시 온다고 볼 수는 없어.

Sani : Wah, bahasa Inggrismu bagus, Edo. Berapa lama tinggal di Amerika?

Edo : 10 tahun.

Sani : Pantasan. (pantasan)

Edo : Tapi tinggal di Amerika 10 tahun pun belum tentu lancar lho.

Sani : Iya, aku tahu. Kalau mau fasih banget, harus bergaul sama orang lok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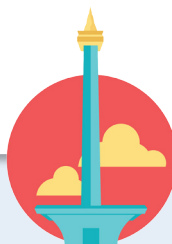
사니 : 와, 에도 너 영어 잘한다. 미국에 몇 년 산 거야?

에도 : 10년.

사니 : 어쩐지.

에도 : 미국에 10년 산다고 영어 다 잘하는 건 아니지~

사니 : 응 알아. 정말 유창하게 하고 싶으면 현지 사람들하고 어울려 지내야지.





바하사 써먹기

- | | |
|--|--|
| · 어떤 남자/여자를 좋아해? | Suka cowok yang seperti apa?
Suka cewek yang kayak gimana? |
| · 날 있는 그대로 받아 줄 수 있어야 해. | Dia harus bisa menerima aku apa adanya. |
| · 네 눈이 너무 높아. | Selera kamu terlalu tinggi.
selera 취향 |
| · 꼭 키가 커야 하는 건 아니야.
꼭 예뻐야 하는 건 아니야. | Enggak harus tinggi.
Enggak harus cantik. |
| · 사귄 지 얼마나 됐어? | Sudah berapa lama pacaran?
얼마 안 됐어. Belum lama.
오래 됐지. Sudah lama.
이제 한달 정도 됐어. Baru sebulan. |
| · 썸타는 중이야. | Lagi PDKT [뽀-데-까-떼]
pendekatan 가까워지는 중~ |
| · 연애할 생각이 없어. | Belum kepikiran pacaran.
진심? Benaran nih? |
| · 아직 짝을 못 만났어요. | Belum ketemu jodoh. |

★ 실력을 쑥쑥 키우는 질문은 여기로 ✉ nusantara817@daum.net



제3회 적도문학상 시상식 & 봄 문학 축제

‘해외 생활에서 겪는 삶의 이야기’를

2부 : 초대문인 문학특강

1. 시를 쓰는 방법 - 공광규 시인(문학박사)
2. 수필의 개념과 구조 - 권대근 수필가, 평론가(문학박사)

문학에 접목 시키는

글: 한국문협 인니지부 / 이영미 작가

일시 : 2019년 4월 22일(월) 오후 3시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회장 서미숙)가 주최하는 2019년 제3회 적도문학상 시상식 문학축제가 지난 4월 22일 오후 3시 자카르타 한국문화원(Korean Culture Center)에서 교민 박시는 사회로 성대하게 막을 올렸다. 제3회 적도문학상 심사위원장을 맡은 공광규 시인(문학박사)과 권대근 수필평론가(문학박사)도 초대문인으로 참석해 시상식을 더욱 빛내주었다. (주)아세안대표부 김영채 대사의 축하, 한국문인협회 이광복 이사장의 격려사 영상에 이어 인니문협에 기여한 공이 큰 김준규 운영위원과 이태복 (전)사무국장에게 공로패 및 감사패 전달식이 있었다. 이어서 아름다운 화음을 자랑하는 아르페 여성 합창단의 오프닝 축하를 시작으로 수상자들을 위한 이태복 시인의 축시 낭송, 공광규 시인과 권대근 평론가의 심사평이 있었다. 이어서 수상자들의 장르별 시상식이 진한 울림을 주는 수상소감과 함께 진행되었다. 2부가 시작되자 축하연주인 현악 3중주의 주옥같은 연주가 수상자들의 심금을 울렸다. 2부 순서의 하이라이트는 문학축제의 꽃인 초대문인의 문학특강이 있었다. 공광규 시인의(시를 쓰는 몇 가지 방법), 권대근 교수의(수필의 개념과 구조)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특강은 문인으로서 첫걸음을 내딛는 수상자들에게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제3회 적도문학상 시상식은 봄 문학축제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알차고 멋지게 마무리 되었다.

“해외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은 유실수가 열매를 키워내는 과정”에 비유하며 “삶이 곧 문학이 되는 아름다운 글을 써나가길 바란다”는 메시지로 수상자들에게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날 시상식 준비를 위하여 일치감치 문화원으로 달려온 김재구 사무국장은 이국땅에서 문학의 꽃을 피우는 인니문협의 지나온 발자취 동영상을 감상하는 동안 가슴이 뭉클해졌다는 말을 전했다. 공광규 시인의 심사평에서는 이번 적도문학상 대상 수상작인 시<바틱론 4-채송화>는 현재와 과거의 경험을 교차시키면서 채송화에 대한 기억을 묘사하는 것이 일품이라고 전했다. 시<바틱론 4-채송화>는 대상 수상작으로 손색이 없을 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여인과 어머니를 병치시키면서 모성애를 진술하는 시적 전개능력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 부문 대상을 수상한 이태건씨는 앞으로 버거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무하는 시를 쓰고 싶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17년에 처음 제정된 ‘적도문학상’은 순수문학을 지향하는 한국문인협회의 맥을 잇고 발전시켜 나갈 우수한 작가를 발굴하고 후진을 양성한다는 취지로 동남아시아에서 처음 제정된 문학상이다. 적도문학상 대상 당선자는 작가등단이 인정되며 최우수상 성인 당선자도 한국문단에 등단



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접수된 작품은 문협 인니지부의 예심과 한국문협에서 위촉된 심사위원의 엄정한 본심을 거쳐 선정된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적도문학상 공모전은 마감 전 응모작이 대거 몰리는 쾌거를 거두었다. 제3회 적도문학상 시상식은 인도네시아는 물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에 거주하는 재외국민과 한국어를 사랑하는 현지인들 사이에서 문학의 꿈을 키우는 작가 등용문으로서 한껏 높아진

위상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다. 문학인의 길로 들어선 제3회 적도문학상 수상자들의 앞날에 문운이 활짝 열리는 건필을 기원한다.



대상수상자 이태건(우)

성인 부문 / 수 상 자						
상 별		장 르	이 름	작 품 명	지 역	시상내역
대 상 (1명) 한국문인협회 이사장상		시	이태건	바딕론 4-채송화	반둥	상장과상금 US\$1,000
최우수상 (2명)	(주)인니한국대사상	시	방성욱	사랑니	땅그랑	상장과상품
	재인니한인회장상	수필	오기택	괜찮아요 Tidak apa apa	반둥	"
우수상 (4명)	재인니상공회의소회장상	시	강인수	자카르타 특별시	자카르타	"
	한국문협인니지부장상	수필	김영준	거북이의 꿈	자카르타	"
	글로벌기업문학상 (PT. CIPTA ORION METAL)	시	송석인	산다는 것-노인을 위한 변명	땅그랑	"
	동남아신문 한나프레스상	수필	김아람	겨울바람 불어오는 날....	자카르타	"
특별상(1명) JKS 학교장상		시	롤리타	소확행	자카르타	"
장려상 (3명)	한국문협인니지부상	시	한화경	내년 겨울은 괜찮겠조	찌까랑	"
	한국문협인니지부상	수필	지 나	엄마의 색종이 접기	싱가포르	"
	한국문협인니지부상	시	신정화	붉은 땅	자카르타	"
학생 및 청소년 부문 / 수 상 자						
최우수상(1명) ㈜아세안대사상		시	누르 사피트리	아름다운 서울 도시 이야기	반둥 UPI3	상장과상품
우수상 (4명)	민주평통상	단편소설	파히라	하나가 되는 별	반둥고 11	"
	재인니 한인문예총회장상	단편소설	노성완	두번이상 먹고싶은 요리	JKS 11	"
	한인포스트상	시	박현서	로봇	SWA 11	"
	글로벌기업문학상 (PT. ZIMMOAH)	수필	박서원	언어와의 전쟁	SWA 11	"
특별상(1명) JKS 학교장상		수필	조성익	한인의 삶	JKS 12	"
장려상 (3명)	한국문협인니지부상	시	베르타니아	공상	데폭 UI 1	"
	한국문협인니지부상	수필	박주선	시간	UPH 11	"
	한국문협인니지부상	시	박현수	바퀴벌레	GMIS 11	"



제 1 회 자카르타 청소년 DREAM 3:3 농구대회

- 일시 : 2019년 5월 25일(토) 오전 8시
- 장소 :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 비전관(4층 체육관)
- 종별 참가신청 : 중등부, 고등부
 - 남, 여, 혼성, 외국인 학생 모두 가능
 - 한 팀은 후보 선수 포함 4명~5명으로 구성
 - 외국인 학생은 전체 인원의 1/2 미만으로 한함
 - 5월 11일(금)까지 parkys1958@gmail.com으로 신청서 제출 (팀 명, 주장 성명, 성명, 학교, 학년, 성별, 국적, 핸드폰 번호)
- 시상 :
 - 각 1등 200만루피아, 금메달
 - 각 2등 150만루피아, 은메달
 - 각 3등 100만루피아, 동메달
- 문의 사항 : 0816-102-299 / 0811-1129-038
- 상세 사항 : www.indoweb.org/dream_sports

※ 참가자 전원에게 간식 및 기념품 제공

● 주최 :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
KOREAN UNION CHURCH IN JAKARTA
www.jakartayounhapch.org

● 후원 :  **아름다운 공동체**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 협찬 :  KORE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INDONESIA(KOCHAM)

 **재인도네시아 보고르한인회**
ASSOCIATION KOREA IN BOGOR INDONESIA

 **MGH**
무궁회유평

 **YONGDAERI**
RESTAURANT

 **TOBAK**
KOREAN RESTAURANT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남아남부협의회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 Southern South East Asia Chapter

 **BBJA 농구단**

 **KOWIN**
Korea Women's International Network

친환경 이동수단, 인도네시아에서도 시행된다



(학생기자 JIS 한영진)

걸어다닐 수 없을 정도로 공기오염이 수년동안 지속된 자카르타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공기오염이 심한 도시로 선정되었다. 경제 발달이 불과 몇 년 전부터 시작된 자카르타는 공기오염 환경을 유해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을 지속했다. 공기오염 수준이 심각해진 근원은 자카르타가 경제 발달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화가 시작 됐기 때문이다. 도로가 제대로 개설되지 않고 사회 기반 시설이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를 생산하기 시작했고 해외 회사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폐기물 양을 늘린 것이 공기를 오염 시킨 것이다. 공기를 가장 많이 오염시킨 것은 차량과 오토바이이다. 가솔린 차량과 오토바이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에 포함된 유해 물질은 공기를 가장 잘 오염시키는 물질중 하나인데, 정부에서 이동수단에 대한 법과 정책을 미리 생각하지 않았기에 유해 물질이 지속적으로 차와 오토바이에서 생성된 것이다. 이 사태로 공기오염 수준이 사람을 해할 정도로 심각해진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년 전부터 정부는 교통문제를 개선하는

것과 함께 여러가지 정책을 시행하였다. 최근 많은 관심을 크게 가진 지상철 시행은 정부의 정책 중 하나이고 지상철외에 이동수단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정부는 이번 4월달 말부터 전기버스 운행을 개설하려고 한다.

정부는 전기버스를 통해 환경을 개선하려 한다고 했다. 전기버스의 정식 운행 날짜는 아직 미정이다. 먼저 시운전을 해본 후 날짜를 결정한다고 했다. 시운전은 6개월동안 시행될 것이고 자카르타의 주도로를 제외한 제한된 지역에서 시행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번 4월달 말에 시행되는 시운전에 시민들도 동참할 수 있다고 이야기 했다. 수디르만 탐린 도로에서 시행될 것이라고 했으며 이 전기버스가 환경을 개선하는데에 크게 기여했으면 한다고 정부는 말했다.

참고자료: Electric buses to go on pre-trial run: Transjakarta

출판사: The Jakarta Post

땀은 좀 흘렸으나 보람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청년협의회(회장:윤홍식) 28명은 4월 17일에서 21일까지 인도네시아에서 머무르며 이틀동안 판중쁘리옥지역의 학교(PKBM HIMMATA 초중고 전교생416명)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학교의 환경미화와 학용품, 운동기구 등을 전달하고 학생들과 친교의 시간을 보냈다.



윤홍식회장은 “자유총연맹 인니지부(회장 배연자)를 통해 인도네시아에 좋은 인연을 맺었다고 생각하며 우리도 어려운 환경에서 이웃국가로부터 원조를 받아 극복했었고 우리도 이웃국가에 대한 작은 도움을 주게 되어 보람있다” 고 소감을 밝혔다.

(제공: 한국자유총연맹 인니지부)

토지법(3)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전호에서 계속)

12. 사용권(Hak Pakai)

사용권은 국가 혹은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토지로부터 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권리이다.

12.1. 사용권 보유가 가능한 자는 다음과 같다.

12.1.1. 인도네시아 국적 보유자

12.1.2. 인도네시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인도네시아영토 내에 법적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주식회사, 재단법인, 조합 등)

12.1.3. 정부 각 부처, 기관 및 지방자치 정부

12.1.4. 종교 및 사회단체

12.1.5.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기한부 거주허가서 이상 보유자)

* 외국인에게 건축권을 허용하는 토지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으며

토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차후 별도로 설명한다.

12.1.6. 인도네시아에 법적인 주소를 두고 있는 외국 법인의 지사(*상사의 지사)

12.1.7. 외국정부 혹은 국제기구의 대표부(*대사관, 총영사관, UN대표부, UNICEF 대표부, EU대표부, ASEAN 대표부 등)

12.2. 사용권 보유자의 법적 신분이 상기 “12.1항”에서 규정한 신분을 상실한 경우에는 1(일)년 이내에 유자격자에게 토지권을 양도해야 하며, 1(일)년 이내에 양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권이 실효한다.

12.3. 사용권은 국가 소유 토지, 개발권 토지 및 소유권 토지에 부여할 수 있다.

국가 소유 토지 혹은 개발권 토지에 사용권 부여 여부 결정권은 중앙 토지원장(Badan Pertanahan Negara/BPN)에게 있으며 타인 소유 소유권 토지에 사용권 부여는 반드시 토지문서 작성관이 토지 소유권 보유자와 사용자 간에 작성한 사용권 제공 문서에 의해야 하며 사용권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한다.

12.4. 사용권 유효 기간

12.4.1. 국가 토지에 대한 사용권은 최초 최장 25(이십오년)년을 주며, 25년이 지나면 최장 20(이십)년 연장이 가능하며, 다시 최장 25(이십오)년 갱신이 가능하다. 토지를 정부 각 부처, 기관, 종교 및 사회단체 혹은 외국정부 혹은 국제기구의 대표부(*대사관, 총영사관, UN 대표부, UNICEF 대표부, EU 대표부, ASEAN 대표부 등)가 특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지 않고 연장이 가능하다.

12.4.2.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한 사용권 연장 조건은 토지가 사용권 부여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어야 하며, 사용권 부여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며, 사용권 보유자가 상술한 “12.1.항”의 법적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늦어도 만기 2(이)년 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12.4.3. 투자 목적 사용권인 경우에는 최초 25년, 연장 20년, 갱신 25년 토탈 70(칠십)년을 일시에 줄 수 있다.

12.4.4. 개인 소유 토지에 대한 사용권 유효 기간은 최장 25(이십오)년을 허용하나 기간 연장을 불허하며 만기가 되면 토지문서 작성관이 소유권 보유자와 사용권자 간에 체결한 토지 문서에 근거하여 신 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사용권을 반드시登記해야 한다.

12.5. 사용권 보유자의 의무

12.5.1. 법정 공과금을 지불해야 한다. 공식 경비는 사용권 취득세는 5%이며 다른 공과금이 더 있다.

12.5.2. 토지 사용권을 부여하는 정부의 결정서에 있는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해야 하며 토지 및 건축물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하며 환경 훼손이 없게 토지를 사용해야 한다.

12.5.3. 사용권이 실효하는 경우에는 토지를 국가에 반환해야 하며 등기권리증서원본도 정부에 반환해야 한다.

12.6. 사용권 토지에 담보권 설정이 가능하다. 즉 담보물로 제공이 가능하다.

12.7. 사용권 토지를 매매, 교환, 출자, 증여 및 상속으로 권리 양도가 가능하다.

12.8. 사용권 토지에 대한 매매는 반드시 토지문서 작성관(PPAT)이 작성한 매매증서로 해야 한다.

12.9. 사용권 실효

12.9.1. 사용권 등기 권리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용권 만기일이 되면 사용권은 실효한다. 따라서 사용권 토지(부동산)을 매입 시에는 등기 권리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만기일에 유념해야 한다.

12.9.2. 사용권 보유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서 사용권을 취소시킬 수 있으며 법원의 확정판결문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권은 실효하며, 사용권 보유자가 만기일 전에 자진 반납하는 경우에도 사용권이 실효하며, 공익을 위해 국가에서 수용하는 경우에도 실효하며, 사용권 보유자가 인도네시아 국적을 상실하고 1(일)

년 이내에 해당 토지를 양도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효하며, 사용권 보유 법인이 법인자격을 상실한 지 1(일) 이내에 사용권을 양도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권은 실효하며 해당 토지가 천재지변으로 유실되는 경우에도 실효한다.

12.10.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하여 사용권 보유자가 사용권을 연장 혹은 갱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 사용권 보유자는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 혹은 건축물 등을 자신의 비용으로 완전히 철거하여 빈 토지 상태로 사용권 실효일로부터 1(일)년 이내에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전 사용권 보유자가 건축물 혹은 건물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철거하고 그 철거 비용은 전 사용권 보유자가 부담한다. 그러나 국가에서 건축물 혹은 건물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전 사용권 보유자에게 건축물 혹은 건물에 대하여 배상해야 한다.

12.11. 개인 소유 토지 혹은 개발권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 실효하는 경우에는 전 사용권 보유자는 해당 토지를 소유권 혹은 개발권 보유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사용권 설정 시 약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3. 부동산 거래 문서 작성관

13.1. 부동산 매매는 반드시 부동산 거래 문서 작성관(PPAT), 공증인 혹은 면장을 통해 거래 문서를 체결해야 한다. PPAT, 공증인 혹은 면장이 작성하지 않고 매매 당사자끼리 직접 체결한 부동산 거래 문서는 등기를 불허한다.

13.2. 통상 PPAT 혹은 공증인비는 매매 증서로 체결 시는 약 0.5%선이며, 매매 약정서를 체결하고 다시 매매 증서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토탈 1%까지도 차지한다.

Camat(면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통상 약 3% 선을 요구하며 지역에 따라 상이하다.

(다음 호에 계속)

인도네시아 건축문화 신착

한인니문화연구원은 구나다르 마대학(UNIVERSITAS GUNADARMA) 김의용교수를 초청해 ‘인도네시아 건축의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가졌다. 지난 3월 30일 10시부터 13시까지 60회 열린강좌로 개최되었다. 인문학으로 다가가는 건축, 건축을 감상하는 방법, 건축의 역사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100여 장의 사진 감상만으로도 시간 가는 줄 몰랐으며 미학적으로 다가가는 건축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다. 질문이 식사시간에도 계속 이어졌으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의용 교수께 감사드린다. 몇 사람만 공유하기에는 너무 아쉽다는 회원들의 요청으로 김의용교수가 보내온 강의 요약본을 싣고자 한다.

1. 건축 - 가까이하기엔 너무 먼

건축은 일반 예술분야와는 다르게 일반인이 건축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없이 감상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분야이다. 물론 예술품을 감상하는데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우리는 “아는 만큼 보고, 보는 만큼 알게된다”. 일반인의 건축감상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건축이 종합 학문적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 건축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건축역사, 철학, 예술사, 건축공학 등, 건축에 관련된 기초학문에 대한 학습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학습서나 기회를 일반인들이 가지기에는 시간과 노력이 너무 소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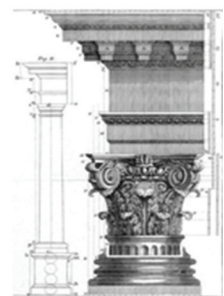
그러나 우리는 어떤 예술품을 감상하든, 어느 장소에서 무엇을 느끼든, “아는 만큼보고, 보는 만큼 알게 된다.”는 분명한 사실과,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한다면 그게 어떤 대상이던 즐거운 학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있다. 그래서 오늘은 건축을 쉽게 감상하기 위한 기초적인 공부



를 통해서 우리의 감성적 호기심을 건축이라는 분야에 투영해보고자 한다.

2. 건축의 기본요소 - 간단하지만 복잡한

동서양을 막론하고, 또 고금을 막론하고 변치 않는 좋은 건축물의 법칙은 대부분 수직적으로 3단 구성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마치 사람의 신체구성인 머리-몸통-다리와 같은 구성으로 건축에서는 지붕-몸통-기단으로 치환된다. 또한 서양건축에서 3단 구성의 비례는 오더(Order)에서 나온다. 좁은 의미에서 기둥의 형식을 의미하는 오더는 건축물 전체를 지배하는 비례체계이자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 서양건축의 기나긴 역사는 이 오더의 역사이며, 오더로 시작된 건축적 변화를 각각의 시대에 적합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역사라 할 수 있다.



서양건축의 오더. 로마의 콜로세움은 최초로 혼성 오더가 사용된 건축물이다.

흔히 건축의 기본 요소는 튼튼함, 쓸모있음, 그리고 아름다움으로 언급될 수 있다. 말 그대로 튼튼한 구조물로서의 건축은 구조적으로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하는 문제이다. 두번째, 쓸모있음은 건축물이 얼마나 기능적인가가 척도이다. 실용적인지, 공간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한지,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계획인지를 묻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아름다움이다. 건축의 미적 측면은 개개인별로 미적 가치판단의 기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규칙이나 조건으로 규정하기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어떤 경향의 미적 취향이라고 하더라도, 사물의 아름다움을 조건짓는 요소는 비례이다. 어떠한 비례를 추구하고 적용하는 지는 개개인의 성향이라고 할지라도, 비례는 아름다움의 기초적이고 근원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원시적 오두막이라는 그림과 동서양 대표적인 건축물의 3단 구성

3. 건축의 고전 또는 고전건축

3.1 서양 건축사-그 해석의 역사

서양건축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로마건축은 시대가 흐르면서 서양의 고전으로 자리 잡는다. 말 그대로 마르지 않는 원천으로서의 고전이 된다. 서양건축의 역사는 바로 이 그리스·로

마 건축에 대한 ‘해석의 역사’ 라고해도 틀리지 않다. 대표적으로 르네상스 건축은 바로 로마건축을 모티브로하여, 당대에 적합한 기능과 경제적 발전 규모에 적합하도록 그리스-로마건축을 재해석하여 완성되었다. 여기서 조심해야할 것은 재해석과 복제의 차이이다. 복제는 옛 것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지만, 재해석은 옛 것을 근거로 하지만 현재에 적합한 기능과 형태로 건축가의 철학과 관점에 따라 재창조된 것을 일컫는다. 이런 의미에서 서양건축의 역사는 ‘해석의 역사’ 라고 말할 수 있다.



로마의 개선문(왼쪽)을 모티브로 설계된 르네상스 시대의 성당

3.2 한국 건축의 특성-사유 방식의 차이가 건축적 차이를 만든다

한국건축은 기본적으로 서양건축과 달리 안에서 밖을 볼 때 그 진가를 알 수 있는 공간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어떤 사유체계의 철학자가 건축의 근간을 결정했는지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한국 전통건축의 깊이는 건축장인이 아니라, 유학자나 스님 등과 같은 인문학적 소양의 기반이 되어있는 지식인에 의해 구축되었음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건축물을 만드는 것은 목수와 같은 장인이 만들었지만, 그 기본적인 세팅은 기술자가 아닌 철학자 또는 사유능력이 있는 인문학자의 숨겨진 것이다. 대표적으로 불교건축은 교종과 선종 계열의 사찰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교종계열은 건축적 규칙을 통해서 사찰을 구축하고, 선종계열은 건축적 질서보다는 건축물로 둘러싸여 만들어지는 공간의 질을 우선시한다.



병산서원

3.3 이미 고전이 되어버린 근대건축

산업혁명이 전개되면서 발생했던 사회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진보적 건축가들에 의해 실험적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근대건축은 이미 우리시대에 가장 가까운 고전이 되어있다. 지금 감상을 해도 대단히 실험적인 건축들이 100년 전에는 어떠한 충격이었겠는가? 이런 찬란한 새로운 고전들을 통해서 우리시대의 건축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으며,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건조환경을 만들게 되었다. 이 시대의 건축가들은 혁명가였으며, 운동가였으며, 이미 그 자체로 사회적 문제와 싸워가는 전위적 예술가였던 것이다. 즉, 건축은 정신이고 인문학이며, 사회와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다는 기본철학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의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정신들의 결과물들이 새로운 고전이 되어버린 근대건축이다.



라투레트 수도원의 본당, 바르셀로나
파빌리온, 슈뢰더 주택, 룡상성당

3.4 인도네시아건축-보로부두르사원

인도네시아 건축의 백미는 누가 뭐라고 해도, 보로부두르 사원일 것이다. 웅장함이라는 크기적 측면이나, 종교적 정신을 녹여낸 건축적 수준까지, 어떤 것 하나 고전의 반열에 오르지 못할 것이 없다. 관광가이드적 측면에서의 바라보면 화려한 조각들과 번성했던 불교왕국의 머나먼 전설같은 이야기가 더욱 흥미로울 수 있지만, 건축적 측면에서만 살펴봐도 보로부두르는 건축의 걸작 중 하나이다.



보로부두르

일반적으로 거대 스케일의 모뉴먼트적 건축물은 관찰자인 사람에게는 일종의 거부감, 불편함과 같은 느낌을 주는데 반해, 이 사원은 스케일을 약화시키는 몇가지 장치들을 통해서 거대 스케일이 가지는 불편한 감정을 상쇄시키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경이롭게 생각하는 조각들, 층층이 잘게 나누어진 매스들, 유려한 곡선들의 흐름들이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이 일자 계단으로 상부까지 쉬지않고 올라가는 진입계단일 것이다. 그러나 이 긴 계단의 오름에는 몇가지 숨은 장치들이 있는데, 대략 높이 1.5미터 혹은 2미터 마다 설치된 여유 공간들이다. 이 쉬는 공간(계단참이라고 한다)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올라가는 힘겨움에 가쁜 숨만 내쉬고 가지만, 이 공간이 뒤를 돌아 건축물에서 외부공간을 감상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이다. 즉, 보로부두르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은 부처님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관찰자의 관점에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원의 주인공인 부처님이 중요한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제 6차 Maju Satu Langkah

2019년 4월 9일 16:00시에 인도네시아 관세청 (Bea dan Cukai) 본청에서 제 6차 Maju Satu Langkah 행사를 가졌다.

본 한인청년회 프로그램은 한인청년회 정제의 회장 및 부회장, 자문, 총무와 관세청의 Kepala Fasilitas Bapak Oentarto Wibowo 국장과 Kepala Tata Usaha Bapak Arif Rifani 그리고 Humas 관계자들이 함께 하였다.

먼저 이 자리에서 정제의 청년회장은 “Bapak Oentarto 국장 및 참석해주신 분들에게 소중하고 귀한 시간을 저희에게 할애를 해주셔서 감사를 먼저 표하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인 청년들과 청년 사업가들이 관세청과 관련 사업 및 업무를 하는데 있어, 좀더 적극적인 협조와 협력을 부탁한다” 며 양국간의 교역량 확대와 소통을 통하여 애기치 못한 결과가 발생하기 전에 협의와 소통을 할수 있는 루트를 만들기 위한 만남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에 Bapak Oentarto 국장은 “우리 관세청은 항상 낮은 문턱과 소통을 위해 더욱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통관 기존 47개 절차가 3단계로 간소화하고 Daily Process 단위를 Hourly Base로 변경하여 시간단축과 모든 신고자를 적격업체로 우선선정 및 승인 후 추후 검증하는 등의 프레임 자체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언제든지 1500225 (24시간 콜센터) 운영을 하고 있다” 고 밝혔다.

한인청년회에서 문의를 한 사항들은 이와 같다. 현장에서 EMS, DHL 등 항공 수입시 동일 제품의 세관 검사관에 따라 상이한 관세금액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을 비롯 일반적인 PIB (관세, 부가세, 법인세 지불) 업체들의 화물, 서류 검사관련하여 Jalur Merah, Jalur Kuning, Jalur Hijau 관련 문의 등을 하였다.

일회성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기로 하고, 진일보한 이번 제 6차 행사를 마무리 했다.

(제공: 한인청년회)



경상북도 김천시 대표단, 자매도시 인도네시아 수방시 방문

수방시 설립 71주년 기념행사 축하 및 교류협력 증진 논의 수방시장, 판중왕이 새마을시범마을을 김천마을로 개명키로

경상북도 김천시 대표단(단장 이강창 부시장)은 지난 4.4(목) ~ 4.5(금) 양일간, 자매도시인 서자바주 수방시를 방문하여 수방시 설립 71주년을 축하하는 한편, 양 지역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김천시는 2014년부터 수방시와 상호방문 및 김천의료원 의료봉사활동, 수방시 의료진 초청 연수 등 활발한 교류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 2016년부터는 수방시 판중왕이 마을에 새마을시범마을을 조성하고 있고 2017년 10월 자매결연을 체결한 바 있다.

판중왕이 새마을시범마을은 김천시 지원으로 새마을 다목적회관이 건립되어 주민들의 회의공간 뿐만 아니라 마을기업을 운영하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며, 2017년부터 시작된 쓰레기분리수거사업은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들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며 마을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양어사료 생산 건물이 완공되면 마을주민들의 소득증대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판중왕이 새마을 시범마을을 방문을 마친 김천시 대표단은 루히맛(H. Ruhimat) 시장이 주최한



환영행사와 수방시 설립 71주년 행사에 잇달아 참여하여 김천시와 수방시간 교류협력 증진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루히맛 수방시장은 판중왕이 새마을시범마을을 김천마을로 이름을 바꾸겠다고 김천시의 지원에 감사의 뜻을 나타내었다.

이강창 김천부시장은 지금까지 모범적인 교류협력 관계가 양지역에 도움이 될 실질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수방시에서 진행중인 정수장 사업에 김천소재 기업진출과 농번기 계절노동자 교류 등을 제안 하면서, 김천시 승격 70주년을 맞아 수방시장의 방문을 요청하였다.

경상북도는 족자카르타주와 지난 2005년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교류 활동을 하고 있으며, 3개소에 새마을시범마을을 만들어 한국 농촌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새마을정신 전파를 통해 지역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에는 체육지도자 파견등 교류활동을 펼친 서자바주와 우호교류 협정을 맺고 지방차원에서의 양국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공: 경상북도 자카르타 사무소)



INTERVIEW
DI JALAN

2019. 4

Ibu Nunung (44세) 우리 동네 에어로빅 강사

매주 토요일 아침 6:30~7:30 까지 슈퍼 주차장에서 동네 아줌마들 20-30명이 모여 신나는 에어로빅 시작한지 3년여 됩니다. 유니폼은 각자 마련하고 참가비로 5천루피아를 받습니다. 그래봐야 월 30-40만루피아입니다. 돈보다는 활기차게 운동하고 함께 모여 노닥이는 재미지요.

빤쪼란에 산지는 17년 되었어요. 딸만 다섯을 낳고 주부로 집에만 있다 보니 허약해져 건강을 위해 시작했어요. 큰애가 28살인데 손주도 3명 있어요. ㅋㅋ 제가 15살에 결혼했거든요.

근데요 우리 애들 방탄소년단에 빠져 방마다 포스터가 덕지덕지예요. 사실 저도 블랙핑크 광팬입니다. 한국드라마도 많이 보는데 너~무 로맨틱해요. K-pop 사랑해요~(한국어)

오늘 아침은 인터뷰 하느라 시간을 많이 뺏겼어요. 우리 회원 모두에게 음료수 쏘실거죠? 아싸~ 초초초

〈편집국〉

2019 제인도네시아안인회 임원 명단

2019.3.29.현재 /가나다순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1	회장	박재한	BUSANA PRIMA GLOBAL
2	명예회장	송은호	KORINDO GROUP
3	전임회장	양영연	TAEWON INDONESIA
4	명예고문	강덕재	LEMBUSWANA PERKASA
5	명예고문	김우재	KOIN BUMI
6	명예고문	배상경	TEBO AGUNG INTERNATIONAL
7	명예고문	신기엽	HANINDO EXPRESS UTAMA
8	고문	김우진	SAMINDO ELECTRONICS
9	고문	김주철	STAR CAMTEX
10	고문	김준규	CIPTA ORION METAL
11	고문	배도운	DOOSAN CIPTA BUSANA JAYA
12	고문	송창근	KMK GROUP
13	고문	신규태	INDO SUNG IL JAYA
14	고문	이진수	SUNGBO JAYA
15	고문	이호덕	ROYAL SUMATRA VICTOR JAYA RAYA
16	고문	조현보	KOMITRANDO-EMPORIO
17	고문	최덕열	SHINTA WOO SUNG
18	수석부회장	김종현	KOIN BUMI
19	수석부회장	김희년	AITI INVESTMENT
20	수석부회장	손한평	DONG SON INDUSTRY
21	수석부회장	채영애	한인회 여성분과
22	부회장	강호성	ANUGRAH CIPTA MOULD INDONESIA
23	부회장	김경국	HANASTAR DAKARA
24	부회장	김석	TAESENGINDO ABADI UTAMA
25	부회장	김육찬	NISSI LAMANDAU JAYA
26	부회장	박성대	HANJIN INDONESIA JAYA
27	부회장	박성호	BANK KEB HANA INDONESIA
28	부회장	송범수	KORINDO GROUP
29	부회장	안윤근	YONG WOO INTERNATIONAL
30	부회장	이광옥	YUNI INTERNATIONAL
31	부회장	이정휴	GEE SAN INDONESIA
32	부회장	이종남	SINYOUNG ABADI

33	부회장	정용완	HUNG A INDONESIA
34	부회장	최정훈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35	부회장	하재수	ROYAL PUSPITA
36	자문위원장	구종율	JASINDO DUTA SEGARA
37	자문위원	강희중	SUNG TECHNOLOGY
38	자문위원	김문환	KASINDO GLOBAL UTAMA
39	자문위원	김병철	MISUNG INDONESIA
40	자문위원	김영만	BATAVIA CHEMTEK
41	자문위원	김영욱	GAYA INDAH KHARISMA
42	자문위원	김영주	DEWA CITRA SEJATI
43	자문위원	김태화	EEN STEEL INDONESIA
44	자문위원	김희익	EPS INDONESIA
45	자문위원	문덕회	SHIN PUNG GLOBAL
46	자문위원	배응식	KORSIA BOAN PERKASA
47	자문위원	사공경	한인니문화연구원
48	자문위원	석웅치	DAYUP INDO
49	자문위원	송광종	MOTONIC INDOPARTS
50	자문위원	엄정호	ING INTERNATIONAL
51	자문위원	오세명	SUNG LIM CHEMICAL
52	자문위원	이승민	YSM & PARTNERS
53	자문위원	이종현	LEO KORINSIA
54	자문위원	이진호	JIN YOUNG
55	자문위원	이현상	ROYAL KORINDAH
56	자문위원	전민식	POWERTECH INDONESIA
57	자문위원	조규철	DONG JUNG INDONESIA
58	자문위원	채만용	CITRA BINA MAJU JAYA
59	자문위원	최병우	ANEKA PANEL INDONESIA
60	자문위원	최정남	GLOBAL FIBERINDO
61	자문위원	하연수	SEOLIN NIAGATAMA
62	자문위원	현상범	INAMEN JAYA
63	이 사	강형구	KORINDO GROUP
64	이 사	강재영	JIPYONG INDONESIA
65	이 사	곽봉규	FOODSTAR GLOBAL
66	이 사	권희정	SAMICK INDONESIA
67	이 사	길병완	DAEYOUNG DUNIA SUBUR
68	이 사	김경곤	SUKWANG INDONESIA

69	이 사	김경애	한인회 여성분과
70	이 사	김경준	SINAR KENCANA ABADI INDONESIA
71	이 사	김문수	QUTY KARUNIA
72	이 사	김미희	한인회 여성분과
73	이 사	김민규	WOORI CONSULTING & WOORI TOUR
74	이 사	김서경	ACCENTUATES
75	이 사	김송정	UNICON INDO MESIN
76	이 사	김영섭	INDIGO MEDICAL
77	이 사	김영울	SUNG CHANG INDONESIA
78	이 사	김옥준	BSI GROUP
79	이 사	김인기	INDOCORE PERKASA
80	이 사	김일태	OROM
81	이 사	김재윤	KUNYOUNG INDONESIA JAYA
82	이 사	김종성	LAW FIRM INDOYANG & PARTNERS
83	이 사	김종희	YOUNG JIN INDONESIA
84	이 사	김호권	SUNSHINE TECHNICA INDONESIA
85	이 사	김형근	GAYA INDAH KHARISMA
86	이 사	김화룡	BANGUN MAJU LESTARI
87	이 사	김희중	JKI CONSULTING
88	이 사	노예범	SAM PUTRA INTI
89	이 사	노태진	SILLA ENGINEERING INDONESIA
90	이 사	박기현	KOREAN AIR
91	이 사	박주상	TOU RUBBER INDONESIA
92	이 사	방진학	HANSUNG INDOTAMA WORLD
93	이 사	백인현	CKD OTTO PHARMACEUTICALS
94	이 사	서영률	PRATAMA ABADI INDUSTRI
95	이 사	서준형	TACHYON INDO
96	이 사	성예식	F1-LOGIX
97	이 사	손용	CJ INDONESIA
98	이 사	송영한	KOFORM INDONESIA
99	이 사	송판원	KORYE POLIMER
100	이 사	신호진	SAUDARA UTAMA INTERNASIONAL
101	이 사	안선근	U.I.N UNIVERSITY
102	이 사	안창섭	PETRASAKTI MADYATAMA
103	이 사	양시완	KISWIRE INDONESIA

104	이 사	양태화	BOSUNG INDONESIA
105	이 사	유용선	DAE HWA INDONESIA
106	이 사	유주완	FEEL BUY INDONESIA
107	이 사	유진상	DAE BAEK
108	이 사	윤태현	DREAM SENTOSA
109	이 사	이강현	SAMSUNG ELECTRONICS INDONESIA
110	이 사	이기영	FITI INDONESIA
111	이 사	이명균	HIJAU ELEKTRONIKA INDONESIA
112	이 사	이상득	IL JIN CHEMICAL INDONESIA
113	이 사	이상일	UNGARAN INDAH BUSANA
114	이 사	이세호	GORI GLOBAL INDONESIA
115	이 사	이옥찬	KORINA SEMARANG
116	이 사	이완주	OCEAN ASIA
117	이 사	이정호	HEONZ ROYAL JAYA
118	이 사	이주한	MEDISON JAYA RAYA
119	이 사	이지완	JIN YOUNG
120	이 사	이지현	ZIMMOAH MARINE TRANS
121	이 사	이철훈	INDO BOX UTAMA JAYA
122	이 사	이태복	DUNIA TIMUR
123	이 사	이한주	SAJI SEGAR LESTARI
124	이 사	이희경	PRIME FREIGHT INDONESIA
125	이 사	임덕진	MIWON INDONESIA
126	이 사	임동진	INKO SINAR MEDIA
127	이 사	임성필	LSP INDONESIA
128	이 사	임일택	ACE MOLD TECH
129	이 사	임진섭	ALIM INDO
130	이 사	정방울	한인회 여성분과
131	이 사	장영관	SURYA MOLD TECH
132	이 사	장윤하	HARINDO
133	이 사	정제의	CHANDRA KOSMETIK INDONESIA
134	이 사	조은숙	한인회 여성분과
135	이 사	조호신	NEMO INDONESIA
136	이 사	채인숙	한인회 여성분과
137	이 사	최원혁	HILON FELT
138	이 사	표기훈	HIT
139	이 사	허진경	한인회 여성분과
140	이 사	홍기호	AURORA INT'L CO.
141	이 사	홍종서	ARION TECH INDONESIA
142	사무국장	최인실	-

2019 임원찬조금 납부명단

기준 : 2019.3.30.~ 4.29.

번호	성명 및 직책	회사명	금액	
			루피아	달러
38	김화룡 이사	PT. BANGUN MAJU LESTARI	14,000,000	
39	김영주 자문위원	PT. DEWA CITRA SEJATI	14,000,000	
40	이종현 이사	PT. LEO KORINSIA	14,000,000	
41	이진수 고문	PT. SUNGBO JAYA	70,500,000	
42	송영한 이사	PT. KOFORM INDONESIA		1,000
43	장영관 이사	PT. SURYA MOULD TECH	14,000,000	
44	김희중 이사	JKI CONSULTING	14,000,000	
45	김태화 자문위원	PT. EEN STEEL INDONESIA		1,000
46	하연수 자문위원	PT. SEOLIN NIAGATAMA	14,000,000	
47	정용완 부회장	PT. HUNG A INDONESIA	56,400,000	
48	김문환 자문위원	PT. KASINDO GLOBAL UTAMA	14,000,000	
49	김육찬 부회장	NISSI LAMANDAU JAYA	70,500,000	
50	김인기 이 사	PT. INDOCORE PERKASA	14,000,000	
51	최정훈 부회장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70,500,000	
52	유용선 이사	PT. DAE HWA INDONESIA	14,000,000	
53	김희익 자문위원	PT. EPS INDONESIA	14,000,000	
54	김형근 이사	PT. GAYA INDAH KHARISMA	14,000,000	
55	정방울 이사	한인회 여성분과	14,000,000	
56	오세명 자문위원	PT. SUNGLIM CHEMICAL	14,000,000	
57	사공경 자문위원	한인니문화연구원	14,000,000	

4월호 37번에 이어 게재

2019 개인희비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 납부명단

※ 기준 : 납부일순

번호	성 명	금액(IDR)
68	김화룡	300,000
69	김영주	300,000
70	이종현	300,000
71	이진수	300,000
72	장영관	300,000
73	이정규	300,000
74	정무웅	300,000
75	김희중	300,000
76	김태화	300,000
77	하연수	300,000
78	김문환	300,000

번호	성 명	금액(IDR)
79	김육찬	300,000
80	김인기	300,000
81	최정훈	300,000
82	유용선	300,000
83	박재한	300,000
84	김희익	300,000
85	김형근	300,000
86	정방울	300,000
87	오세명	300,000
88	사공경	300,000
89	배석구	300,000

4월호 67번에 이어 게재



긴급전화번호

경찰	POLICE (Polisi)	112
범죄 및 도난 신고		110
소방서 (화재신고)	FIRE BRIGADE (Dinas kebakaran)	113
응급차	AMBULANCE (Ambulan)	118 119
민간구급차 서비스	PRIVATE AMBULANCE SERVICES	(021)7506001 =International SOS (24시간대기)

■전화번호 안내

시 내.....108
Directory Service(City)

시 외.....105,100
Directory Service(Suburbs)

국제전화.....001,008

■교통기관

수카르노 하타 공항 안내.....021)5505307/8/9
Airport Information 550 5179

택시예약(블루버드클럽).....021)7917 1234
(24시간 접수)

고속도로 정보.....801
Toll Road

교통사고.....118, 021)527 5090
Traffic Accidents

열차시간안내.....121
Station Gambir
Station Kota.....021)692 8515

■재인도네시아 한국인관련 주요기관

한국대사관.....021)2967 2555

영사관.....021)2967 2580

재인도네시아한인회.....021)521 2515

한인회 24시간 비상연락.....0812 1960 308

■항공사 안내

대한항공(시내).....021)521 2180
(터미널3).....021)8082 2198/9
가루다(Call Center).....021)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시내).....021)5721 381~3
(공항).....021)5591 3229

■우편

중앙자카르타 우체국.....021)384 4188

■각종 고장 문의

전기고장 문의.....123
전화고장 문의.....147
수도고장 문의.....021)57986555

[한인외 외비 납부 안내]

개인회비는 가구당 매년 Rp. 30만 입니다.

한인회비 납부를 통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재원 마련에 한인 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동포여러분!

재인도네시아 한인회는 실명 위기의 김모씨(53세, 끌라빠가당 거주)에게 눈수술을 위한 수술비를 지원 하였습니다. 한인회는 김모씨가 2016년 8월9일 출국하여 성모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한인구조단(사단법인 월드웨어)과 연계하여 도움의 손길을 베풀었습니다.

이렇듯 한인회비는 어려움에 처한 한인동포들을 돕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장 양영연 배상

<보내실 곳>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BANK KEB HANA INDONESIA
계좌번호 (루피아)	Rp. A/C NO: 200-913-783689	Rp. A/C NO: 220-200-5949
예금주	YAYASAN WARGA KOREA	YAYASAN WARGA KOREA

외원증 발급

회원이 되신 분(기 납부하신 분 포함)께 회원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문의처: 한인회 사무국 021 521-2515

한국인 직원 구인 / 구직 적극 지원
아래 주소로 이력서 송부 바랍니다

Bagaimana mendapatkan orang yang TEPAT?

✓ **急한데 .. 유능한 人材 어디서 찾나 ?**

Recruitment Service



OSSELNAJAYA
새르나자야

Korea Desk
0878-8042-9794
021-572-7214
hwangyh@os-selnajaya.com
www.os-selnajaya.com/en

domestic : Karawang, Cikarang, Bandung, Surabaya, Cibubur, Lembang, Jakarta : 19th fl. Mid Plaza II, Jl. Jend. Sudirman Kav 10-11 Jakarta, Indonesia
overseas : Vietnam, Malaysia, Singapore, Cambodia, China, Japan, HK, India, Australia, Germany, Belgium, Poland, UK, Chile, Peru, Brazil, Colombia, Ecuador

•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관	2967	2580
주아세안대한민국대표부	2967	257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	1900, 2992
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3030	
중소기업진흥공단	5292	130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954	03357

•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한인회 비상연락전화	0812	1960 308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5	11708882
한인니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여명	9955	5859

•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JKS)	844	4958-61
간디국제학교	690	9902
뉴질랜드국제학교 (NZIS)	7884	1226
싱가폴국제학교 (SIS)	7591	4414
(골라빠가딩)	460	8888
영국국제학교 (BIS)	745	1670
자카르타국제학교 (JIS)	750	3640
북국제학교 (NJIS)	453	1001
호주국제학교 (AIS)	782	1141
일본학교 (JJS)	745	4130
네덜란드국제학교(NIS)	782	3929

독일국제학교(DIS)	537	8080
TAIPEI 국제학교(JITS)	452	3273
SPH (땅그랑)	546	0234
(찌까랑)	897	2786
RICS	7590	3342
헤리티지인터네셔널 (HIS)	0812	971 2306
LYCEE Int. FRANCAIS	750	3062
JIPS	3004	2885
JIMS	744	4860
PAKISTAN EMBASSY SCHOOL	390	4137
ACG 국제학교	780	5636
ICSCE	780	7313
익투스크리스천국제학교	7590	8820/50

• 유치원

Hansol Kids	765	6588
Brain School	7179	4787
Bambino (Cipete)	227664497/7203356	
(Patra Kuningan)	8378	3783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스쿨(자카르타)	750	0739
(골라빠가딩)	471	8047
(땅그랑)	558	7227

• 골프장

BOGOR RAYA	0251	827 1888
CENKARENG	5591	1111
CILANGKAP	8459	5687
CIKAMPEK	0264	317 007
DAMAI INDAH [BSD]	537	0290
EMERALDA	875	9019
GADING RAYA	546	7668
GUNUNG GEULIS	0251	825 7500
HALIM 1	800	5762
HALIM 2	809	0729



마타아리 여행사

소장 정 연 승

T. 521 2212 H. 081 888 5353
E. yunisarah@naver.com



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
주거공간
↓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 021-7278-0704 Fax : 021-7278-8330

**오롬컨설팅
PT. OROM**

KITAS, KITAP, SILVER VISA...

“20년 노하우로 키타스 수속은
한달안으로 종로하겠습니다.”

Dalam satu bulan kami bisa selesai
proses KITAS sampai kirim visa kabel



[사무실 이전안내] OUR NEW ADDRESS
Plaza Pasifik Blok.B-2 No.39 Kelapa Gading
Jakarta Utara 14240

visa.orom@gmail.com T:(021) 4585 4910
한국인 Kakao ID: indocity1991 (021) 4585 4911
한국인 indocity1991@gmail.com (021) 4585 4207
visa.oromchris@gmail.com

강남렌트카



**0811-9409-632
0812-1097-631**

IMPERIAL	546	0120
JABABEKA	893	6148
JAGORAWI	875	3810
KAPUK	588	2388
KARAWANG	0267)405	888
KEDATON	5930	0000
KEMAYORAN	654	1156
KRAKATAU	0254)372	030
LIDO	0251)822	1008
MATOA	787	0864
MODERN	552	9228
PALM HILL	8795	4307
PANGKALAN JATI	751	3326
PERMATA SENTUL	8795	1787
PONDOK CABE	740	5385
PONDOK INDAH	769	4906
RAINBOW HILL	0251)827	2111
RANCAMAYA	0251)824	2282
RAWAMANGUN	475	4732
ROVER SIDE	867	1533
ROYAL JAKARTA	8088	4488
SAWANGAN BARU	740	2194
SEDANA	0267)644	730
SENTUL HIGHLAND	8796	0266
TAKARA	599	1227

●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392	17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가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 골프샵

교민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골프샵	546	0838
레네세계골프	739	8312
한양(골라빠가딩)	450	4364
EFC Golf	725	0057
혼마플레이골프	344	2540
MFS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Love Green Halim	8778	2771~2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동문회

● 중/고교

강경상고(민병무)	0818	879 149
경기고(구본찬)	780	0204
경남공고(이봉규)	0812	902 3800
경남중고(정낙현)	0813	8293 8557
경동고(강성원)	0812	8830 8566
경북고(노경인)	0815	1901 0575
경북고(이병수)	0816	181 3615
경성고(박영권)	0813	8805 1296
경신고(김진태)	7883	6372
경주중고(김홍규)	0818	141 635
구미 전자공고(이원규)	0815	1428 9329
계성고(최상록)	0811	249 038
광주고(선홍규)	0813	1536 5223
광주 사레시오중고	548	5112
광주 서중일고(이용하)	527	0150
광주 금호고	0815	1903 5802
광주 진흥고(박호섭)	0858	7650 6040
남성중고(임석균)	515	9277
대구고(김현철)	0818	718 535
대구대륜고(노태진)	0816	835 185
대구 상고(김진우)	825	0581
대구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대광중고(이민규)	0816	880 018
대원외고(권기훈)	0877	7779 4668
대전고(윤내선)	426	2954
덕수고(성기운)	0816	114 7364
동대문상고(곽기석)	867	3837
동래고(박형남)	0819	555 3456
동성고(홍창형)	0812	102 2670
동아고(여병철)	0811	187 554
동인고(차명훈)	0815	950 0461
마상고(김만수)	0811	122 5239
목포중고(김용진)	568	0517
배재학당(이성수)	0815	1428 0295
배정고(김상훈)	0817	659 9473
보성고(김유호)	5940	1282

ICHTHUS SCHOOL

PRIMARY | SECONDARY | PRE - UNIVERSITY

ACCREDITED BY: 

**“SO THAT WHOEVER COMES
WILL HAVE A TRANSFORMED LIFE”**

**OPEN
REGISTRATION
For New
Academic Year**

West Campus
Jl. Surya Mandala III Blok N II No. 11,
Sunrise Garden West Jakarta 11520
T: +6221 581 2228

South Campus
Jl. Carlingin Barat No.1 Cilandak
Barat, South Jakarta 12430
T: +6221 7590 8820

www.ichthusschool.com

보성교우회(박지배)	0811 976 537
부산기고(채윤규)	026 751 2483
부산 동고(이동훈)	0811 190 7967
부산상고(박갑수)	0812 952 5404
부산 중앙고(송명석)	0811 834 412
부산고(조명국)	0811 1046255부
산 외고(선진세)	0813 8536 8434
서울고(이상열)	0811 916 953
서울 대신고(서영석)	0813 1139 7145
선린상고(김기석)	0817 648 9321
성남고(성기재)	0815 1070 2424
성동고(구본욱)	025 161 1466
성원고(강변창)	0811 891 458
수원 유신고(안성욱)	0813 1626 7777
순천 중고(김정욱)	0815 1932 9650
승문고(김영언)	0816 937 269
신일고(금민철)	0816 864 677
심인고(김종필)	0815 1305 4150
안양공고(조한영)	0812 859 8483
양정고(이중환)	0815 1033 1001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등포고(정하승)	0811 140 334
오산고(조동혁)	0815 7432 7769
용산고(박승래)	0813 1842 1269
유한공고(이선용)	0812 071 210
인천중/제물포고(한승도)	0818 912 698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전주고(남택열)	0811 877 108
정석항공고(백승엽)	0811 903 144
중동고(김일태)	0812 1922 1462
중앙고(정재익)	0811 910 013
진주 대아고(김영진)	5522 0041
청주고(조영선)	0815 1901 4477
충남고(이수현)	0811 175 126
한성고(박창화)	0816 780 751
해광고(서동희)	0813 9839 9286
휘문고(맹중호)	0818 973 986

● 대학교

강원대(송영석)	0812 1326 5977
건국대(조선용)	0811 910 6707
경기대(박호섭)	0858 76506040
경북대(김규식)	0816 182 3748
경희대(양승민)	0811 164 367
계명대(백성영)	871 2371
고려대(이광수)	0813 8026 1353
공군 장교단(정태훈)	0811 9891 403
부경대(이제원)	0812 968 9797
동국대(염정운)	0817 681 8599
동아대(서종균)	0811 850 212
목포해양대(이종재)	08111 975 205
부산대(유제상)	0811 841 510
부산외대(이동훈)	0816 781 564

서강대(이철우)	08121177399
서울대(정무웅)	797 5959
성균관대(김진태)	0818 953 949
숙명여대(서영자)	0815 1324 2799
숭실대(김학수)	0811 879 701
아주대(서보상)	0815 1902 4220
연세대(금민철)	0816 864 677
영남대(김상수)	0812 103 8707
영산대(최재혁)	590 0401
울산대(최재호)	723 0917
이화여대(김미송)	0811 122 0566
인하대(이기홍)	0816 812 507
전남대(최병욱)	0816 188 1233
전북대(최성호)	0815 7232 3689
중앙대(손동근)	0811 844 247
충남대(노제익)	452 6968
충북대(최병인)	0817 778 857
한국외대(신성철)	0818 936 943
한국해양대(이승준)	0811 190 7718
한양대(임영석)	0811 944 338
ROTC(사무국장: 김성일)	0811 805 606
육군학사장교(김상진)	0812 8779 9035

● 은행

수출입은행	525 7261
KEB 하나은행 본점	522 0223
우리소다라은행 본점	2995 1915
신한은행	2975 1500

● 가구

조지언 퍼니처	2276 6887
아이니갤러리	581 4690
울닷컴 원목가구	0858 8831 1218
로만 인테리어	0811 847 699
그린 가구	0813 1000 8778

● 건강식품/건강원

COCOON(일동제약인지부)	520 7662
경동건강원	7028 4262
고려건강원	081 690 3990
부아메라	0816 1854 58
한국건강원	5579 6411
황소건강원	5576 7628
술진생코리아	7278 8287
이름황성주생식	5296 1522

●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킹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Hallo Phone	5290 0233

woori

우리컨설팅

정직 · 성실 · 전문성의 우리컨설팅이 함께 합니다
투자 / 법인 / 인허가 / 비자 / 채용 / 부동산 / 리서치

Tel : 021-7918-4239 | HP : 0811-146-3700
Email : master@woori-consulting.com

URI TOUR & TRAVEL **우리투어**

Tel : 021-794-0422 / 021-7919-9201
HP : 0811-1742-0811
Katalink ID : uritour88
Email : master@uritour.org

www.doowang.net

DOOWANG Since 1994

과 함께 가면 먼 길도 가까워 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가다듬고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바르게-

DOOWANG Consulting
Since 1994

Graha Surveyor Indonesia, 19th Floor Suite 1901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Tel. (62-21) 2941-0780 (hunting) | Fax. (62-21) 2941-0775
Mobile: 0811-953607 | www.doowang.net
E-mail: lsw@doowang.co.id | leesowang@gmail.com

항공권 · 호텔 · 관광 · 비자

로템과 함께하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RODEM TOUR

Tel: (021) 4587 8833 Fax: (021) 4587 8834
HP: 0812 8092 5464
Email: rodemtours@naver.com



Law Firm INDOYANG & PARTNERS 법무법인 인도양

강력한 변호사 팀 / 확실한 법적 해결
형사 · 민사 · 세무 · 투자 · 국적

김종성(변호사/ 대표Partner): UI대 법대졸, UI대 법대 대학원졸

HP : 0815-8690-3000 Email : cskim@indoyanglaw.com 또는 cskim.indoyanglaw@gmail.com

Korea Center Building, Suite 605 Jl. Jend.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12950, Indonesia Telp : 62-21-5273077 / 8 Fax : 62-21-5207212

● 건설 / 설비 전기

DASOM indonesia	2940 3042/5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나무플라워	0812 1314 2681

● 기타

에셀바틱	0813 1038 4812
마음수련	722 1600
바람소주	0858 8831 1218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트리비움발리마사지스파	0813 9861 1388

●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끌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마루노래방	027 2831 869

●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2 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1 193 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 미용실/피부관리

갤러리 J	725 2856
국제미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미용실, 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자르헤어	7279 6998
Salon & Beauty Shop	7278 6969

●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법무법인 인도양	527 3077

●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한국부동산	0811 876 204

● 방송사

K-TV	525 2922
OKTN(KBS World)	797 6151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 병원

관존한의원	739 7854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서울메디칼 클리닉	799 1333
신농씨한방병원	7278 0563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아리따움 치과 /피부과	725 3458
향림당 한방병원	720 7727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Matahari Klinik	722 6391
Dokter Korea	0815 8539 7777

●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가시)	821 8705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끌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찌까랑)	7075 2214
무궁화(다르마왕사)	723 3214
서울마트(가라와찌)	546 0844
서울슈퍼(끌라빠가딩)	450 4364
우리슈퍼(버가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G-마트(찌부부르)	8459 9858
K-마트	2277 5526
위자야마트	726 9049

● 식당

하나	0254-393 2146
가나레스토랑	0811 918 132
가야성	725 7373
가호(SCBD 점)	5289 7044
강남	0812 2323 5119
강남스타일	2952 8443
김균 고기고기	726 4999
김삿갓	722 2230
대가	8459 2871
대감집	720 7530
대화	720 6091
락	5793 9211
마포	7279 2479
맛집칼국수	0821 1096 3483
명가면옥	0254-849 3571
면의전설	521 0230
명가면옥	2751 0800
미가	0818 85 8026
미스터 박	5140 1142
버가시 서울	8895 7604
베다니1호점	9318 0458
베이징	0254-837 0242

보신명가	789 0220
본가	739 6229
삼원가든	2988 9505
설악추어탕	722 1852
소래포구	8990 5051
아랑22	5140 1245
아리정	739 6549
우장군	725 6181
청기와	726 1924
청담가든	0815 7342 5802
청해수산	527 8721
토박	725 1135
하누	725 5042
한강가든	0813 1988 5751
한양가든	2751 7370
이가네	6669 5500
한옥	0254-385 588
강산	2452 0569
깜땀	4584 5837
다미	4585 0040
대장금	0816 885 956
마포갈매기	0812 9313 9503
명가면옥	8990 4552
미스터 사시미	4585 3484
미추홀	6583 1472
산정(찌까랑)	2909 3454
(땅그랑)	547 3172
서울	4585 4454
설악추어탕	2937 5435
송가네삼계탕	4585 4422
야래향	4584 8476
황금밥상	4585 3402
감미옥	5579 4612
강나루	5576 8222
강촌	5579 3681
꼬꼬따리아	0254 394 255
대가야	547 5511
명가면옥	552 2745
산들	5579 5821
상하이	5573 5550
산해진미	5577 8182
서울일식	546 0840
아리수	0254-781 0059
알리사	0254-60 1430
오리랑장어랑	5577 6457
우리들	552 4047
조선민물장어	5573 3308
종가레스토랑	551 3273
청기와	0858 1377 3388
체어맨	5577 8585
태능갈비	7055 0888
테라스 가든	8493 9321
한마당	5577 6770
산정 까라와치	547 3172

산정 찌까랑	2909 3000
산정 까복	3005 1650
요리가	4584 4502
유가네	2221 3392
본가 (족자카르타)	0274 2831440
치맥 (족자카르타)	0274 2831869

• 신문

한국신문 종합대리점	520 7207
데일리코리아	725 7447
조선일보	2930 6886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한인포스트	4586 9199
타임인도네시아	5028 4996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신문	5290 0117

• 안경원

시티안경원	726 5009
-------	----------

• 여행사

나래여행	5296 0749
하나족자트라블	0274 887 488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투어	391 1381
우리투어	7918 4239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래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2950 8903
Inko Batam(바탐)	0778 462 500
사랑투어	2912 5099

•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 의료기

PT. CGM INDONESIA	08119593111
-------------------	-------------

• 인터넷

HANASTAR INTERNET	2270 8282
-------------------	-----------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교민여러분과 25년을 함께 해 온
가구 인테리어 전문회사

 **로만인테리어**

사무실/아파트/주택/매장/업소
공장/기숙사
가구, 키친세트, 인테리어
각종 리노베이션 상담

Showroom/Office:
Jl. RS Fatmawati No. 21A, Cipete Jakarta Selatan
Tel: (021) 766 2519 한국인직통 0811-847-699
카톡 ID: limbs521

소고기, 돼지고기와 함께
신선한 **참치**(볼때기살, 뱃살,
배꼽살)를 출시합니다!

 **김군**

고기고기
밴드(김군 고기고기),
카톡baguskim5050,
087780948178로
주문하세요

S-Net	7080 7886
-------	-----------

• 인테리어

AEGIS BLIND	2943 3876
H2 Stuff	4586 7860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0811 847 699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그린 인테리어	0813 1000 8778
INNOMATE	7919 2006
올댓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INPLAN DESIGN	0857 1198 6516

•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센다이 이주화물	8770 6361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가나의 Special MENU

가나의
복
전문

가나의
Delivery Menu
도시락
전문

가나의
Catering Service
케터링
전문

Landmark Bld. Ground Floor, Jl. Jend.
Sudirman Kav.1 Jakarta
Phone **2520077, 5710909**
(KIM MI YOUNG 0811 918 132)

트란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5591	5770
페나스콧 로지스틱스	2902	3838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84	155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	------

● 증권/보험

삼성화재	021	8062 2000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6242
키움증권	5010	5800
KDB 대우증권	515	1140
KB손해보험	3199	0247
한화생명	727	88150

● 컨설팅

오롬컨설팅	4585	4910/11
럭키비자	0813	1133 2122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누비라컨설팅(리또찌까랑)	8990	0088
두왕컨설팅	520	7153

● 종교 단체

<기독교>

꿈이있는교회	548	3044
늘푸른교회	766	9191
동부교회	4587	7317
연합교회	7279	5625
예사랑침례교회	4176	5140
소망교회	739	6487
순복음교회	739	2373
안디옥교회	751	5525
열방교회	552	5164
열린교회	844	5537
위자야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사랑의교회	450	7324
주님의교회	831	3843
중앙감리교회	533	2749
찌까랑임마누엘교회	8990	3133
참빛교회	718	3535
한마음교회	739	5035

새천년컨설팅	5290	0040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퓨릭컨설팅	5596	3213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비앤시 컨설팅	2278	0470/4013
한국컨설팅	0811	876 204

● 인재채용

OSSelnajaya(세르나자야)	572	7214
--------------------	-----	------

● 컴퓨터, IT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0811	888 9609

●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 하숙

경복궁 하숙(리또찌까랑)	0813	1415 7581
가딩 홈스테이	9661	5877
간다리아 게스트하우스	0858	1442 2900
갈릴리 게스트하우스	0858	1341 3222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0813	1514 9978
교민 하숙	0816	163 5558

<천주교>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		
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나인비즈니스 하숙	9940	5005
둥지 하숙	3608	9316
리또찌까랑 하숙	0812	1066 7757
레저 게스트하우스	0811	143 437
모나리자	8990	9570
모이하숙	0878	8515 1653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0813	8059 1625
세명 하숙	0852	1757 5525
세노파티코리안 하우스	0821	1336 1111
소망 하숙	0813	1724 9911
쉼터 하숙	726	8775
시내중심 게스트하우스	0815	1780 3680
이모네 하숙	0818	964 946
인다 게스트하우스	0822	6074 8228
엘지 게스트하우스	0812	100 7135
엘림 게스트하우스	0815	181 3122
위자야 게스트하우스	0815	1024 8888
자카르타 게스트하우스	0817	127 887
풀하우스 게스트하우스	0811	888 9609
한발	830	9990
한울타리	739	5841
한아름 게스트하우스	723	8302
현대 하숙	0818	795 787
한마음 게스트하우스	0813	8822 7783
BSD등불 하숙	0852	1985 1523
힐링 게스트하우스	0821	1427 5415

● 학원/교육업

대교인도네시아	5292	0911
마인드케어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아카데미	0811	9103 108
박학천논술	4586	7844
에썸드라아트스쿨(리또찌까랑와찌)	546	4531
예원	720	8783
케이에듀인 한국어/유학원	2942	7062
종로학원	7883	5202
토마토미술	723	3699
	0817	9876 950
피카소어린이미술학원	0813	989 22222

하이스트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 항공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터미널3)	8082 219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 (시내)	572 1381~3
(공항지점)	5591 3229
싱가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몰리아	574 7777
샹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얏트	390 1234
크라운플라자	526 8833
술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자바 팔레스	2928 1111

•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플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5 1158
환전	712 8556

발 리 (지역번호 0361)

• 항공

대한항공(KAL)	768 377
-----------	---------

• 종교단체

한인교회	462 222
------	---------

• 슈퍼마켓

한국슈퍼마켓	281 929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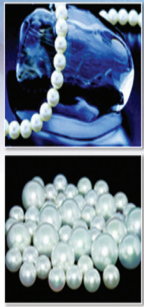
• 여행사

B.J.C TOUR	284 365
BALI INDA TOUR	286 905
BALI DAMAI TOUR	764 864
BALI HARMONY TOUR(A)	744 1815
BALI STAR TOUR	868 8287
BALI TAP TOUR	860 4977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 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진주가 되겠습니다.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최대 93% 환매보장 ◆ 순금 매입·매각 가능
 ◆ 순금 가공 가능(회사로고, 행운의 열쇠, 골프공 등 원하시는 형태)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세트(다이아, 진주)
 ◆ 최상품 게르마늄 건강팔찌 및 목걸이 판매

갤러리(위자야센터 옆)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Tel. +62-21-7278-8327 HP. +62-888-110-2022

수출·무역

HP. +62-816-873-176, +62-816-1390-333
 E-mail. 3spearl@hanmail.net
 +82-10-5509-7751, +82-10-9824-8857



MANGOCAKE	745 4229
FIN DONGHWA TOUR	847 1966
DREMLAND TOUR	745 1961
DARMA BALI TOUR	848 0030
KOURUS TOUR	744 7200
M. TOUR MAIL	725 800
NUSA TOUR	285 122
ITOUR	261 105
MATAHARI KOREAN TOUR	703 479
MARIN TOUR	224 010
PD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P.B.B TOUR	288 999
U2 Bali Holiday TOUR	710 731
T.N.B TOUR	808 9000
UNION TOUR	745 4419
SUDINA TOUR	744 2121

SPIRIT TOUR	780 2340
KOREA TRAVER	756 899
V.I.P. 여행사	762 090
WORLD RESORT CENTER	778 218
WEDDING TOUR	745 3650

• 식당

그릴하우스	(0361) 710 374
꼬끼레스토랑	770 256
대장금(SIMPANG SIUR)	889 0870
대장금(SANUR)	918 1888
라리스	727 405
부가	805 1212
서울가든(부두굴)	(0362) 342 9220
한일관	727 250
인터내셔널라운지	759 368

• 서비스업

- 빌라, 호텔

BEVERLY HILLS VILLA	848 1800
BALI DIARY HOTEL	499 282
DREAM LAND VILLA	708 199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MAN&WOMAN VILLA	847 6521
LAVENDER HOTEL	752 961
VILLA DOWNTOWN	736 464
VILLA NAMASTE	755 755
ISIS VILLA	862 8777

• 기타서비스업

I.N.L	720 999
INKO CLUB	722 431
HALLO BALI	723 593
SIMPANG SIUR	761 313
AVENUE	762 327
ISIS (NUSADUA)	770 256

ISIS (SANUR)	287 257
COLAGEN BUTY SHOP	885 1770
CLUBBER	766 340
BALI FINE	852 8881
POLO SHOP(AIRPORT)	759 368
BALI TEGEHE AGUNG	298 643
CLEAN & GREEN	289 070
SUN JEWELLERY	761 537
SINAR MUTIARA BALI	462 061
BALI DEWATA	285 501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SAMMA	815 310
BALI PROPERTY CONSULTING	264 086
SHINY HAIRSHOP	766 304
카리스(특파전문백)	0811 998 1637

반둥 (지역번호 022)

반둥 아름다운교회	201 3184
	0813 2233 0119
반둥 반석교회	201 5022
한국인교회	201 4052

•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아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둥렌트카	0858-1111-4000
반둥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둥컴닥터	0821-2222-6000

2018년 한인 문예총

<회장단 & 집행부>

박형동 회장/한바패 회장
채영애 감사
사공경 고문
강희중 자문
신돈철 자문
이수진 수석 부회장
허민경 사무국장/스트링 오케스트라
정방울 사무차장/한인무용단
김경애 전시 수석부회장/한지공예
이은수 전시부회장/미협

김혜정 공연 수석부회장/JKCC 어린이 합창단
정재익 전시부회장/서협
김영희 공연 수석부회장/아르떼 여성합창단
김일순 공연부회장/한바패
박의태 공연부회장/색소폰
박정욱 공연부회장/극동방송 합창단
손창진 공연부회장/아버지 앙상블

<17개 소속 단체장>

극동방송 합창단 단장 : 신정일	0811 924 328
국악사랑 회장 : 장방식	0811 902 003
루시 플라워 회장 : 최정순	0811 834 026
문인협회 회장 : 서미숙	0812 8178 050

미술협회 회장 : 신돈철	0878 5480 4815
색소폰동호회 회장 : 박의태	0811 876 547
서예협회장 : 송판원	0816 1840 762
스트링오케스트라단장 : 허민경	0812 1316 2064
아르떼 여성합창단장 : 채영애	0816 745 384
아버지앙상블단장 : 변영극	0815 9101 898
어린이합창단 지휘자 : 안영수	0811 9005 639
월화차 회장 : 이춘순	0878 8333 3359
음악협회 회장 : 채영애	0816 745 384
한국무용단 단장 : 정방울	0811 1636 210
한바패 회장 : 박형동	0811 149 586
한지공예 단장 : 김경애	0815 1941 1756
헤리티지코리아섹션 대표 : 김상태, 김혜정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지역한인회 주소록

현재 2019. 4. 29.

번호	지역한인회	직 위	성 명	휴대폰
1	발리한인회	회장	윤 경 희	0811-385-841
		수석총무	최 경 희	0812-380-6288
		총무	송 학 자	0812-362-3000
		고문	김 갑 수	0811-394-552
		총무	이 태 우	0812-3793-9452
2	반둥한인회	회장	편 대 영	0813-2145-7997
		사무국장	윤 재 웅	0813-1921-5720
3	케프리주 바탐 한인회	회장	공 자 영	0811-691-826
		수석부회장	주 정 만	0812-704-5030
		사무국장	정 규 철	0812-701-6090
		총무	이 상 구	0821-7356-8405
4	보고르한인회	회장	이 철 훈	0811-112-179
		총무	임 성 필	0819-707-107
5	메단한인회	회장	홍 상 철	0811-608-724
		총무	손 근 환	0812-655-9418
6	수까부미한인회	회장	김 흥 기	0811-111-5208
		부회장	최 종 섭	0811-114-2163
7	동부자바(수라바야) 한인회	회장	이 경 윤	0812-322-2011
		수석부회장	김 태 현	0818-321-332
		수석총무	우 상 화	0817-500-1042
		총무	배 기 보	0812-3251-5518
		총무	배 기 보	0812-3251-5518
8	중부자바(스마랑) 한인회	회장	유 성 천	0812-2867-994
		수석부회장	임 종 학	0813-2525-7777
		사무총장	문 성 구	0811-275-080
		수석총무	양 재 삼	0812-9323-8002
9	족자카르타한인회	회장	배 석 기	0816-1844-165
		총무	조 용 재	0815-4880-0256
10	즈파라한인회	회장	김 신	0812-2991-588
		수석총무	조 영 성	0813-9032-3355
		총무	양 세 환	0822-2719-9135
11	팡그랑반뜰한인회	회장	채 만 용	0813-8621-5850
		사무국장	허 미 숙	0818-660-732
12	마카사르술라웨시 한인회	회장	이 재 호	0811-444-190
		총무	한 정 곤	0811-419-200
13	롬복 한인회	회장	박 태 순	0812-378-9841



**BE
THE FIRST
MOVER**



KMK GROUP